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외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장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2월 13일 (토) 제 1813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2021 사순절 40일의 영적 여정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삶/고난 묵상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실제 프로그램 소개

다가오는 2021년 사순절은 더욱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2020년 사순절이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혼란 속에 지난 시간이었다면, 2021년의 사순절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의 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주님께 잠잠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당신의 일하심을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2021년의 사순절은 주님을 더 가까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누구라도 보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크리스천 모두가 함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

사순절의 시작을 의미하는 재의 수요일 예배 시에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회중을 권면한다.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 또 기도 금식과 자기 부정을 통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사순절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부활절을 향해 가는 이 기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정해진 규칙은 없다. 대신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죄악 됨과 마주할 방법, 또 우리가 가진 책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이라는 선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스스로 맞는 영성 훈련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금식(절제) 하기

가장 흔한 영성 훈련의 한 방법은 사순절 동안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초콜릿이나 소셜 미디어(SNS), 쇼핑 같은 것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한다. 이는 금식이라고 알려진 종교적 실천이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읽기

성경읽기를 시도하는 많은 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른다. 이에 교회들은 사순절 묵상을 위한 소책자나 온라인상에서 읽을 수 있는 성경말씀 묵상자료를 업로드 해주어야 한다. 매일 본문 말씀 하나와 그분에 관해 생각을 열어주고 영혼을 살찌울만한 읽을거리를 함께 제공해준다.

기도하기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사실 억지로 기도할 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자발적으로 기도의 생활을 더 하도록 훈련할 좋은 기회다. 이 기

간에 여러 기도의 방식들을 시도해볼 수도 있고 혹은 한 가지 새로운 기도의 방법만을 철저히 훈련할 수도 있다. 기도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사순절을 잘 지내는 훌륭한 방법이다.

휴식하기

많은 성도가 지키지 못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휴식 혹은 안식(Sabbath)이라는 영적 훈련이다. 전통적으로 안식일로 지켜져 온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에 꼭 안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평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점심시간 몇 분을 떼어 책상에서 묵상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고, 재택근무를 마치고 설교를 듣거나 또 영혼을 살리

는 시를 읽기로 정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사순절을 보내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매일 사순절 퀴즈 풀기

사순절 퀴즈를 통해 우리의 지식을 시험하는 일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매일 제공되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답하고, 또 그를 통해 해당 주제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퀴즈 문제들을 나누고 다른 이들 또한 우리의 사순절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배우기

또한 사순절 기간은 기독교 교회의 관습들과 사순절과 부활절에 대해 더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십자가와 같은 흔한 상징물도 사실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보다 덜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알래스카의 부활절 토템 상(像) 같은 상징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쿠데타 저항운동 확산, 국제압박 가중

BBC, 미얀마 사태와 민주화 과정 소개 및 향후 관측 보도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오랜 군부 독재를 끝내고 문명 시대를 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BC는 미얀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짚어준다 (Myanmar coup: What is happening and why?).

식민지배와 군부통치로 점철된 역사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다. 영국의 오랜 식민지배를 받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점령기를 거쳐 1948년 독립국가를 수립했다. 그러나 미얀마의 민주 정치는 1962년 네윈 장군의 쿠데타로 종식됐다. 미얀마 독립운동을 이끈 민족 지도자였던 네윈 장군은 1988년 미얀마에서 대규모 민주화 항쟁이 벌어질 때까지 미얀마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며 독재정치를 펼쳤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던 미얀마는 이 시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8년에는 미얀마 전역에서

경제, 정치 상황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항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를 무력 진압했고, 미얀마에는 탄수웨 장군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군부정권이 다시 들어섰다. 이로써 미얀마는 2015년 민주적 총선을 치를 때까지 50년 넘게 군부 지배를 받았다.

버마 vs 미얀마

1989년 미얀마 신군부는 나라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버마라는 국호는 100여 개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에서 유래한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정재호 목사



4면 장애인 선교 강원호 목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할렐루야 백화점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써 학력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 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 창22:1-19 (2) 신약주해 : 마5:1-12 (3) 논문제목: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논하라 (4) 설교원고: 마5:7-11 / 마8:11-14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실고시용 치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해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c) 면접고시

서류제출요령

-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1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5회 총회기간(5월 18일-21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 증명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 a) 일자: 2021년 5월 11(화) - 12(수) b) 장소: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서부: 대흥장로교회(Dae Hung Korean Church, 권영국 목사)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응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송일용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1일-12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제출처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주소 : 1641 W. 185th St. Gardena, CA 90248 전화 : (818.282.0112) / 이메일 kapcpastor@g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 김재호 목사 (Rev. Kim Jae Ho) ezrakim59@gmail.com (C) 646.270.5987 b) 고시부 서기 : 송일용목사 (Rev. John Y. Song) kapcpastor@gmail.com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조문휘 목사 서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발행인 칼럼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올 것이 왔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드디어 내게도 왔다. Rapid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PCR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잠시지만 지금은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비 대면으로 드리고 있고 나는 집에서 회복 중이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함으로 늘 교회에 부담을 주어왔는데 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교우들은 약한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앞 다투어 금식 기도로 함께해 주고 있다. 자격 없는 자가 받고 있는 눈물겨운 사랑이다.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음은 교우들의 사랑과 믿음의 기도 때문이다. 지난 주 목양칼럼을 이렇게 썼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왕에 의해 잡혔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울 때 불편과 염려를 드러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 날 제 몸 곳곳을 짓눌렀던 고통의 착고(着網)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저는 곧 다시 일어나 교회로 달려갈 것이고 우리는 또 위대한 행진을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걱정도 컸지만 기도는 더 셧다. 아내는 무섭지도 않은가. 내 옆에서 밤낮없이 정성으로 챙겨준다. 어렸을 적부터 나의 약함을 보아왔던 가족들은 목회 평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누님은 이런 글을 보내주셨다. “겨울이 없는 나무는 자랄 수 있어도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존 번연” 고난이 있어야 열매도 있다는 위로의 글이다. 그러다 보니 아픈 겨울이 오히려 희망의 겨울이 된다. 막내 누님은 녹슬지 않은 피아노 반주와 함께 찬송을 불러 녹음해 보내주셨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다. 모든 성도들이 그랬듯이 나의 지난 길들이 쉽지 않았다. 앞 길 또한 멀고 험하리라. 어떻게 할까? 누님이 부른 찬송처럼 나 주님만 따라 가리라. 가족의 사랑과 격려는 약함을 강하게 해준다. 가족 같은 여러 지인들의 넘치는 위로.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도움도 약한 자를 강하게 일으키는 힘이였다.

“약함이 강함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파님이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글이다. 파님의 이름은 “Joy”이다. 목사님은 사물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계셨다. 약함 속에 슬픔과 좌절을 보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명과 강함을 보신 것이다. 약함이 위축과 비굴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면 이처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바울은 약했다. 건강이나 언변이나 외모가 약했다. 그런데 당당했다. 아주 강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냈다. 약함이 없는 자 없다. 그 약함은 우물하게 살라는 저주의 약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라는 축복의 약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함을 강하게 만든다. 이제는 나의 어떤 약함도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길이 이처럼 여럿이 있기 때문이다.

백신접종 시작...그러나 거부하는 크리스천들 속내는?

CT, COVID-19 백신에 대한 3가지 생명윤리적 질문 소개와 해설 보도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연달아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공 열려버렸던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희망을 품게 됐다. 미국의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점차 일반인들에게로 확대되면서 2021년도 하반기에 이르면 인구의 70% 이상이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이어 팬데믹의 종식을 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1918년 2월에 발병해 2년 2개월 만에 종식된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 어쩌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백신 거부(Vaccine hesitancy)는 COVID-19가 시작되기 전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10대 건강위협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일부 미국 기독교인은 제형(Formulation)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우려로 백신을 거부하며, 일부는 안전과 부작용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보수집단과 우려를 공유한다.

COVID-19 백신은 94-95%의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은 며칠 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백신 복음주의자들의

신이 안전하고 윤리적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함에 따라 많은 복음주의 단체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 질문 중 일부는 나

그러나 미국의 COVID-19 백신 공급이 의료진에서 노인과 필수인력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인들은 백신 접종기회가 주어졌을 때 백신주사를 맞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약화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것이 아닌 mRNA를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지만 이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 질문 중 일부는 백신에 대한 기존의 우려에서 비롯된다(3 Bioethical Questions About COVID-19 Vaccines: After considering new mRNA technology, Christian experts are in favor).

세포를 포함하지 않고 생산 시 태아세포에 의존하지 않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을 인정했다. 이 회사들은 표준 관행으

포진, 소아마비(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버전이지만) 백신 개발에 사용되었다.

과학자들이 생존 가능한 치료법을 만들기 위해 동물 세포 및 비인간 태아 세포와 같은 대안을 발견함에 따라 새로운 백신은 태아 세포주에서 떨어져 있다. Pro-life Susan B. Anthony List의 연구부서인 Charlotte Lozier Institute는 정부의 백신개발 프로그램인 Operation Warp Speed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백신 후보들이 태아 세포를 사용한 시기를 설명하는 차트를 만들었다(아래).

Sponsor(s)	Status	Development/ Production of Vaccine	Testing
Pfizer BIONTECH	Emergency Use FDA Application Approved	Green	Green
moderna	Emergency Use FDA Application Approved	Green	Green
AstraZeneca	Phase 3 Trials	Red	Red
Johnson & Johnson Janssen	Phase 3 Trials	Red	Red
NOVAVAX	Phase 3 Trials	Green	Green

백신 접종,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의 이웃 사랑으로 표현 백신의 안전과 생명옹호 윤리적 문제, 분배윤리에 초점

50%, 흑인 개신교인의 59%가 백신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체 미국 인구의 대다수(60%)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백신 접종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해왔으며, 이익이 해악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1700년대에 청교도 설교자 코튼 매더(Cotton Mather)는 첫 번째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기도 전에 그의 신도들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날 선도적인 기독교 의료전문가들과 윤리학자들은 백신을 홍보하고 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백

태된 태아 세포주(abortion-derived fetal cell lines)를 백신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백신 자체가 개인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윤리적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는 지역 및 전 세계 이웃을 위한 분배윤리(ethics of distribution)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낙태된 태아 세포주를 사용해 백신을 만드는 것은 생명을 옹호하는(pro-life) 신념을 위반하는 것인가?

미국 '기독교의료 및 치과 협회(Christian Medical and Dental Association)'는 mRNA 기술을 사용해 태아

로 백신 검토를 위한 시험에서 잠재적인 부작용이나 세포의 손상을 검사하기위해 태아 세포주를 사용했다. 태아 세포주 자체는 태아조직을 포함하지 않는다; 태아 세포주는 수십 년 전에 얻은 태아 세포에서 유래했고, 실험실에서 자랐다.

오늘날 많은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제약사·개발사는 1960년대에 2번의 낙태를 통해 얻은 태아 세포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 배양하고 냉동 보관되고 있다. 당시 태아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바이러스를 숙주로 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져 왔으며, 풍진, 광견병, A형 간염, 수두, 대상

이 연구소는 항체 반응을 확인하기위해 세포를 사용하는 모더나와 화이자와 같은 백신과 낙태된 태아의 세포에 의존해 생산된 백신을 구별했다.

아직 미국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백신은 실험실 테스트에서 뿐만 아니라 오래된 태아 세포주를 사용해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주에 4개국에서 승인됐다. 두 회사는 최근에 형성된 글로벌 컨소시엄 코백스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백신을 배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들의 백신은 또한 더 저렴해 일부 국가에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을 위해 태아 세포주가 필요한 경우에도 많은 생명옹호론자들은 여전히 백신 접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4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위내과, 위장내과, 위암, 대장내과, 소장,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검퓨터 빅오 내시경 시술

매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치아(식임플란트), 구강외과, 불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장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eavens stars moon hisfinger

stars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and the *, which you have set in place - Psalm 8:3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2021 사순절 40일의 영적 여정 시작!

<1면에서 계속>

물론 세례나 성찬과 같은 교회의 성례에 대해서 더 배우기로 작정할 수도 있다. 각각의 성례가 사순절 부활절과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사순절 보내기

사순절이라 불리는 40일 간의 기간은 신앙적으로 성장할 좋은 기회다. 자기 성찰과 영적 발견을 위한 자선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 또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내는 일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

19 방지 지침을 준수하면서 실행하도록 한다.

결론으로, 2월 17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40여 일의 시간 동안 성도들은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삶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는 등 경건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초

유의 사태 속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부활의 발자국을 따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절기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떠나는 40일의 영적 여정이 돼야 한다.

쿠데타 저항운동 확산, 국제압박 기증

<1면에서 계속>

미얀마 군부는 버마라는 국호가 영국 식민시대 잔재가 남아 있는데다 미얀마에 존재하는 100여 개 민족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호를 공식 변경했다. 그러나 아웅산 수처 등 미얀마 내 민주화 운동세력은 국제사회 공인을 받으려는 신정부의 의도라며 '버마'라는 국호를 고수했다. 미국 정부도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아웅산 수처 국가고문과 미얀마 민주화 인사들은 국호를 버마로 다시 고칠 것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미얀마라는 국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부 국제인권단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마라는 국호를 선호하며 미얀마와 종종 혼용하고 있다.

지난한 민주화 과정과 아웅산 수처의 등장

1988년 8월 8일, 당시 미얀마 수도였던 양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988년 8월 8일 벌어졌다고 해 미얀마에서는 '8888 항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8월 8일에 시작된 이 민주화 시위는 9월 16일 군부에 완전 진압될 때까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이 기간 3천 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 승

려가 목숨을 잃었다. 아웅산 수처 고문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서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수처 고문은 미얀마 국민이 존경하는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 딸로 당시 잠시 귀국했다 고국의 참혹한 현실을 목도한 후 미얀마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다.

이후 미얀마 민주화 세력은 수처 고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을 결성했지만 군부는 당 활동을 정치시키고 수처 고



문을 가택 연금하는 등 탄압을 가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가하며 압박했고 결국 미얀마 군부는 1990년 총선을 치렀다. 이 총선에서 NLD 당은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부정 선거라며 정권 이양을 거부했고, 군부 통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미얀마 민주 세력의 끈질긴 민주화 요구와 국제사회 압박 속에 미얀마 군부는 2008년 헌법을 개정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전환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상 군부에 정부 요직과 의회 의

석 일부를 자동 할당시킴으로써 정치권과의 완전 분리를 거부했다.

또다시 위태로워진 미얀마의 민주전환

미얀마는 2008년 개헌 후 2010년과 2015년, 그리고 2020년 3번의 총선을 치렀다.

2010년 총선 때는 NLD당이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불참했고, 친군부 정당이 승리했다.

2015년 총선에서는 NLD당이 압승을 거두며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문민정부 시

대를 열었다. 헌법 조항에 묶여 대통령직에 오를 수 없었던 수처 고문은 외교장관 겸 국가고문이라는 직책을 갖고 실질적 통치자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군부 입김은 강했고, 수처 고문의 문민정부는 군부가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을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또다시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을 후퇴시켰다. 쿠데타의 중심인물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로힝

야족 대학살을 지휘했다고 지목받는 인물이다.

미국과 미얀마 관계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는 Barack Obama 행정부 시절부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1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거의 반세기 만에 미 국무장관으로서 최초로 미얀마를 방문하며 양국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미국은 2012년부터 미얀마의 민주전환을 위해 15억 달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월 2일 미얀마 사태를 '군사쿠데타'라고 공식 규정했다. 쿠데타로 규정되면 해당국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도 단행할 수 있다.

이번 미얀마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력을 가늠할 중요한 첫 시험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 제재로 미얀마 군부가 중국 쪽에 더 밀착해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동맹 정책에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수천명 규모의 거리시위가 벌어지는 등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시내 곳곳에서 수천 명이 참석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졌다고 현지 매체 등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며 행진했고 아웅산 수처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도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지난 1일 군사 쿠데타 발생 뒤 최대 규모다.

시론

'아멘' 하기도 곤란한 시대



최해근 목사 (용곡교회)

지난 1월 4일 117차 국회를 개원하면서 9선의 원이며 감리교 목사인 임마누엘 클레버(Emmanuel Cleaver)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도문을 작성한 후 인도하였는데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감리교 목회자로 지도자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해 그의 기도문은 참담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神), 브라마,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神)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이 기도를 결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경의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힌두교에서 세상을 창조한 신(神)으로 언급되는 '브라마'에게 드려진 그런 기도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문의 내용이 아무리 경건하고 웅장하더라도 그 기도의 대상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하고 고백했던 그런 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상한 신(神)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기도를 '아멘 그리고 아-우먼'(Amen and 'A-woman')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가 끝났을 때 '아멘'하고 마치는 것과는 다르게 그는 '아멘' 그리고 '아-우먼'도 추가로 첨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코미디처럼 끝을 맺은 이유는 '아멘'의 끝이 '멘 men'이기 때문에 국회에 등원해 있는 여성의원들을 생각해서 '아멘' 뿐만 아니라 '아 우먼 woman'까지 해주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기도문이 아니라 코미디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하였고 옳지 못한 자세임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성(性)과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 중립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기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뼈대를 세우는데 사용된 단어들을 마치 나쁜 의도가 포함된 단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지워버리려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특정한 성(性)을 포함하고 있는 'Father' 'Mother' 대신에 두리 뭉실하게 'Parent'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들도 제안합니다. '맘'(mom)과 '대디'(daddy)를 합쳐서 '마디'(maddy)로 표현하고, '마마'(mama)와 '파파'(papa)를 합쳐서 '마파'(mapa)로 표현한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6일 영국의 한 여성이 2013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였습니다. 당시 성전환수술을 하면서 여성이 가진 임신기능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정자 기부를 받아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확인서에 자신을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다 거부당한 후 마침내 영국 대법원에까지 소송을 가지고 갔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규칙과 합의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거두셨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적(性的)인 약점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약점을 가진 죄인들을 제자로 받아주시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性)의 기준을 낮추거나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성소수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말하고 성경적인 길로 이끌어주는 담대함과 용기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어둠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신앙인의 '너그러움'과 '단호함'을 함께 가지고 우리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기를 다시 다짐해봅니다.

hankschoi@gmail.com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Genesis 22:1-19 (2) NT Exegesis Text : Matthew 5:1-12
- (3) Thesis Topic : Evaluate the "Online Worship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Theology
- (4) Sermon Text : James 5:7-11 / Amos 8:11-14
-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l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c) Oral Interview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1.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1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5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8-21, 2021).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11(Tue)-12(Wed), 2021
- b) Place : Eastern Reg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Western Region: Dae Hwang Korean Church(Rev. David Y. Kwon)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1.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1-12, 2021) through Rev. John Y. Song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hn Y. Song
Address : 1641 W. 185 th St , Gardena CA. 90248
Cell :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m Jae Ho (646) 270 5987 / ezrakim59@hmail.com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Y. Song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총회장 : 조문휘 목사
- 서기 : 이준우 목사
-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안에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오래전 영화 '쇼생크 탈출'을 감명 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공 앤디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누명을 벗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20년 만에 탈옥에 성공합니다. 반면에 앤디의 교도소 '절친'인 역술하게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누명을 벗을

만 언젠가 앤디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꿈, 희망, 꿈을 갖고 살던가 희망 없이 죽던가. 희망에 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나는 내가 무사히 국경을 넘었으면 좋겠다. 내가 국경을 넘길 희망한다. 앤디를 다시 만나서 포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사람은 밤을 먹지 않아도 3주간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의 책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에서 "나치 수용소의 탈출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반면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카르케고르)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은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절망은 마지막 버틸 수 있는 힘마저 삼켜 버리는 괴물입니다. 절망은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무렵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이 인류 최초의 '하루'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서 밝은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분, 절망의 밤에서 소망의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줄을 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의 줄을 붙잡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절대 절망 중에 있었던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즉 굿 뉴스(Good News)입니다. 복음은 절망 중에 있는 자에

게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소망의 빛줄입니다. 구원의 선물이니. 절망이란 암세포를 죽이는 명약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오직 절대 소망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끈을 놓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절망의 빛줄에 꽂꽂 묶인 사람을 아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미션 넘쳐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푸/른/초/장

정재호 목사
(C&MA 한인총회 감독)



람의 집,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집, 염병이라도 퍼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며 사는 사람의 집, 행여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물건이 자신에게 닿을



그림 3(a)



그림 3(b)

들이 자신의 훌륭한 집으로 사도 베드로를 모시려고 애를 썼겠는가!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많은 간청들을 뒤로하고, 결국 그 누구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무두장이의 집에, 그것도 여러 날 머물렀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관념,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고 살아가는 기존의 틀, 그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행동을 과감히 단행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거꾸로 볼 수 있게 하고 거꾸로 행할 수 있게 하였는가? 결국은 복음이다! 베드로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는, 베드로는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았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는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세상

수라장이 되어버린 지금은 이와 같은 선한 능력자들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는 과연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까? 무슨 특별한 과정을 밟았을까? 무슨 특별한 비법을 전수받았을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릴리 촌뜨기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어떤 훈련, 그 어떤 과정, 그 어떤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와 같은 선한 능력자로 만들었는가? 결국은 복음이다. 베드로는 복음이 빛이었던 결과품이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귀한 한 분을 제대로 깊이 만났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그가 나눌 수 있는 그의 이야기의 전부이다. 그런데 그 분과의 깊은 만남이 촌뜨기 어부 베드로를 뒤집어 보고 뒤집어 행하는 능력자로 변화시켰다. 결국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해답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너무도 암울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헤쳐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결국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해답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들어가야 한다. 그분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더욱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을 자연스럽게 거꾸로 보게 되고 거꾸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함께 넉넉히 통과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속4:6).
sunniechung@yahoo.com

“뒤집으면 보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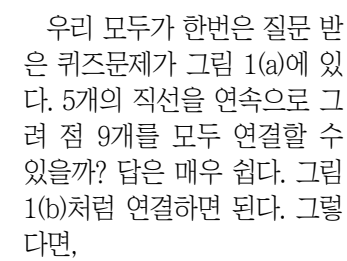


그림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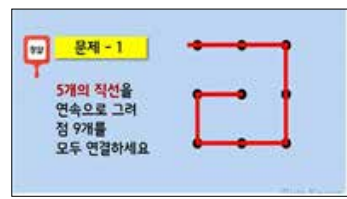


그림 1(b)

우리 모두가 한번은 질문 받은 퀴즈문제나 그림 1(a)에 있다. 5개의 직선을 연속으로 그려 점 9개를 모두 연결할 수 있을까? 답은 매우 쉽다. 그림 1(b)처럼 연결하면 된다. 그림 1(a) 문제 - 1

살아가는 기존의 틀을 깨뜨릴 때,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문제가 풀리는 대박을 경험하게 된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시도,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고,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드러낸다.

이번에는 그림을 하나 보자(그림 3(a)).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는가? 당연히 어미 독수리가 보인다. 모이를 물고 와서 새끼에게 그 모이를 주려고



그림 2(a)

하는 어미 독수리, 그리고 그 어미 독수리 아래에는 둥지 속에 들어 있는 새끼 독수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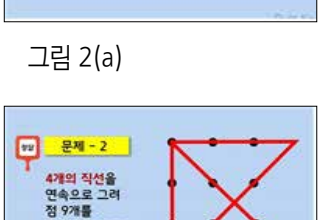


그림 2(b)

보인다. 이 그림은 독수리에 대한 그림이다. 그런데 이 그

림을 확 뒤집으면, 전혀 새로운 그림이 된다. 가지 면류관을 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된다(그림 3(b)).

뒤집지 않으면, 독수리 그림을 백날을 뚫어지게 보아도, 이 독수리 그림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뒤집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대박이 터진다. 그렇다! 뒤집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관념,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수용하고 살아가는 기존의 틀을 뒤집으면, 그러면 미지의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기존의 관습이라는 틀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그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면, 비로소 그 때에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대박이 터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읍바에 여러 날 머무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다. 아니 무두장이의 집이라니! 왜 하필이면 무두장이의 집이란 말이냐!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절대적으로 꺼리는 사

까봐 문동병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며 사는 사람의 집,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해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집. 그 집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

무두장이 시몬이 그 대단한 사도 베드로에게 행여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청하였을까? 그런 아닐 것이다. 어떻게 무두장이인 시몬이, 감히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 요청을 했겠는가! 사도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무두장이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머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

사람들과 다르게 뒤집어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보고 거꾸로 행동할 때 참 묘한 일이 일어난다. 그 뒤집어진 생각과 뒤집어진 행동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는 도전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뒤집어 보고 뒤집어 행하면 바로 이러한 선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뒤집어 보고, 뒤집어 행함으로, 세상에 감동과 도전의 파장을 일으키는 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충격과 감동과 도전과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삶 말이다.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아

백신접종 시작...그러나

(2면에서 계속)

가톨릭교회는 예방접종을 선택한 사람들은 낙태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남침례교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는 백신을 맞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트리니티 대학교에 있는 '생명윤리 및 인간존엄센터(Center for Bioethics and Human Dignity: CBHD)'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방법은 윤리적으로 파생된 세포주 또는 더 나은 백신 생산 방법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기독교의료 및 치과협회(Christian Medical and Dental Association)'는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발달단계에서도 낙태된 태아세포가 없는 윤리적인 COVID-19 백신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2. mRNA 기술은 안전하고

윤리적인가?

과학자들은 1990년대부터 면역요법을 만들기 위해 mRNA를 연구해왔지만 지금은 백신에만 사용되고 있다. 2002-2004년 사스바이러스 발생과 2012년 메르스 발생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mRNA를 사용해 전파를 유발하는 스파이크 단백질(spike protein, 코로나바이러스의 막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세계 보건기구에 보고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중국 연구자들은 바이러스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해 공개했고, 며칠 만에 모더나 연구자들은 과거의 연구를 적용하고 mRNA 백신의 서열을 확정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COVID-19백신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표면에 자리 잡은 스파이

크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인간 세포에 알려주는 mRNA 합성 가닥을 사용해 면역 반응을 활성화한다. 이것은 DNA가 아니며, RNA이기 때문에 쉽게 분해되고 인간의 유전자 코드에 삽입되지 않는다.

미국립보건원의 원장이자 기독교 유전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백신에 대한 모든 주요 문제는 시험 후 몇 달 이내에 발견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 부작용이나 위험은 다른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mRNA 백신의 장기적인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BHD는 백신회사와 미국의 규제기관이 기록적인 개발속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위험을 경감시켰다고 믿는다.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는 미국정

부가 규제 프로세스의 신속성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간주하는 것에 동의한다.

3. 우리는 COVID-19 백신을 맞을 기독교인의 의무(Christian obligation)가 있는가?

CBHD는 이 질문을 탐색해 과학자들이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COVID-19 백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단계는 미래에 어떤 도덕적 의무가 매년 독감백신을 맞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은 SARS-CoV-2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과 증가하는 사망률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로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COVID-19를 앓고 난 후 충분한 사람들이 면역이 돼 아직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집단면역(Herd Immunity)이 백신

없이 달성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는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70%로 추정했지만, 최근에 면역학자 앤서니 파우치는 더 높은 수치로 옮겨갔다고 말한다. 홍역과 같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은 그 비율이 95%이며, 여전히 작은 발병이 발생할 수 있다.

앨버트 몰러는 백신접종을 자신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갖고 개인의 선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취약한 이웃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앨버트 몰러는 "백신을 접종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제3자가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면서, "공동선(common good)의 일반 원칙은 선행,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대한 이의를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들 신념의 일부로서 주요 성격 원칙을 따져보아야만 한다"고 썼다.

그는 자신은 백신접종을 할 것이며 다른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역과 같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은 그 비율이 95%이며, 여전히 작은 발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기독교 대학은 의무적인 COVID-19 안전예방조치에 따라 학생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도록 요구했으며, 접종이 가능할 때 COVID-19 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주나 다른 환경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예방접종의 이점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바이든 행정명령-다음세대와 가정들을 겨냥한 성정체성 전쟁(상)

서명운동에 참여 요청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 백악관에 들어온 첫날인 1월 20일, 가장 중요하고 긴급할 때 사용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다음 제목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and Comba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및 퇴직에 관한 행정명령"(백악관 대통령 행정명령 보기: Tvnext.org에 가서서 보실 수 있음)

바이든의 행정명령서는 다음 같은 글로 시작합니다.

"Every person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and dignity and should be able to live without fear, no matter who they are or whom they love-모든 사람은 존중과 품위로 대우 받아야하며 누구든 누구를 사랑하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미국 안에는 위에서 언급된 삶의 태도가 모두에게 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글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미국 시민들 전체일까요 아니면 특정 단체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바이든과 그 행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까지도 포함할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이든의 서문 바로 밑글에 나옵니다.

"Children should be able to learn without worrying about whether they will be denied access to the restroom, the locker room, or school sports. (의역)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 라커룸(샤워실) 또는 학교 스포츠에서 (자신이 원하는 젠더로 갈 때) 자신의 젠더가 거부당할까봐 걱정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라고 적으며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한 법안들을 나열하



고 있습니다.

즉,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을 가길 원하거나 여학생 옷 갈아입는 라커룸을 사용하기 원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오바마 정권 때의 정책들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들과 행정명령이 끼칠 영향은?

1. 바이든 행정명령에 반기 드는 여성 페미니스트 운동가들

수십년간 여성인권을 찾기 위해 싸워온 페미니스트(Feminist) 운동가들로부터 불과 같은 폭풍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자스�포츠에서 여자들이 수년간 힘써 훈련하여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리그 경기를 준비한 것을 완전히 무시한 정책이라고 바이든 행정명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같은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결과로 여러 여성 스포츠 경기자들은 말하길, 여자라고 나타난 남성 트랜스에게 자신이 이길 수 있던 우승의 자리를 빼앗기는 상처, 아픔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호소였습니다.

2. 혼돈스런 성정체성과 연결된 공립학교 성교육과 수업들이 자녀들에게 끼칠 영향

매우 심각하고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성교육의 심각성,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쓰레기 취급하게 하는 공립학교의 세뇌교육 법안들에 대해서 Tvnext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화 되는 기업, 비

즈니스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예가 있지만 Target 기업은 남녀 공동화장실을 트랜스젠더 화장실로 만든 후 여성화장실에서 여자들을 몰래 사진 찍던 남성들을 경찰이 와서 여러 번 있었고 버지니아에서는 2019년에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남녀 혼용시설에 불평없이 따라오라는 규칙을 강조하며, 여자 라커룸에서 남자가 옆에서 옷을 벗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학생에게 학교 카운슬러들은 "Just get it over with it! 그냥 극복해!" 라고 지시하도록 합니다.



3. 미연방법안까지 "젠더와 성적 지향 Gender & Sexual Orientation"을 포함하도록 하며, "discrimination 성차별"이란 의미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바꾸도록 행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직결되기 때문에 최악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세뇌 성교육, 중고등학교 스포츠와 남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신앙에 기반한 비즈니스, 종교단체 및 크리스천 직원들, 기독교 학교들까지도 "역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행

정명령입니다.

Alliance Defending Freedom 법률소 수석고문인 John Bursch는 1월 21일 CNA와의 인터뷰에서 "이 행정명령은 엄청난 과격함이다. 연방법에 나오는 단어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재정의 하도록 요구한다. 현실을 재창조하고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오랜 보호를 파괴하려는 파괴적인 노력을 초래할 것이며 '성'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며 진보도 아니다... 법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혼돈을 일으키고 여성과 소녀에게 상처만 줄뿐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라 오바마가 소녀들이 여학생의 화장실과 샤워실 사용할 수 있도록 연방 기금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라고 백악관을 떠났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들어오자마자 즉시 그 명령을 뒤집어서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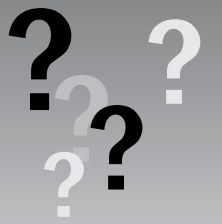
4년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민주당 바이든이 들어와 트럼프의 옴바로 잡혔던 정책을 뒤집고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 또 한번 우리 아이들과 다음세대에 최고의 해가 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나 낸시 펠로시는 취임 첫날 오바마의 성정체성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바이든의 이러한 서약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Tvnext.org에 가서서 이 사악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서명운동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희 교회는 매주일 예배를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 다 되도록 성찬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인지요? 그리고 성찬식이 캐톨릭이나 루터교와는 다른데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질문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성찬설과 둘째는 온라인 성찬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독교의 성찬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성찬은 다음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설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로마캐톨릭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 로마캐톨릭교회에서는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예전문을 낭독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의 속성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 본질(substance)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캐톨릭의 이와 같은 이론의 근거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마26:26)과 요6:50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의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은유로 보아야 합니다. 화체설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의 법칙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성체를 높이고 숭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4가지 성찬설 중 개혁교회는 '영적 임재설' 수용

2) 루터교회의 공체설(consubstantiation). 루터는 화체설을 부인하고 그것을 공체설로 대체했는데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아래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몸과 피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전인격이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과 피가 성찬시에 장소적으로 임재(Local presence)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불합리적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 내 몸과 동반하느니라"고 하는 의미로 만 들기 때문입니다.

3) 쾰빙글리(H. Zwingli)의 기념설. 성찬이 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의 표(Badge)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도 분명합니다.

4) 영적 임재설, 개혁과 교회의 입장입니다. 칼빈은 쾰빙글리와 루터파의 중간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쾰빙글리가 성찬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과거의 속죄적 죽음에 의뢰한다는 강조한다는 점에 강조했다고 비판했고 그리스도는 현재도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전인격적 신비적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개혁주의 교리학"에서 칼빈의 성찬관을 말하는데, "성찬을 시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능력적(dynamic)으로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하늘에 있으면서 그의 빛과 열이 땅에 임함과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임재는 오직 영적인 것이니 입으로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 신 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손드와리(SONDWARI)

인도는 민족, 언어, 종교 그리고 사회 그룹들이 모자이크처럼 복잡하게 얽힌 나라다. 이런 다양함 때문에 인도는 다른 단일민족처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 9350만명이 넘는다. 인구밀도는 1평방마일 당 약 762명이다.

인도는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강과 평야 지역인



히말라야, 데칸, 동부와 서부의 갯(Ghat) 산맥이다. 다양한 지리적인 모습 때문에 계절적인 것과 지역적인 기본 위에 열대에서 잠깐 힘들 정도의 기후까지 기후적인 환경도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 51,800명의 손드와리족이 존재한다. 이들은 주로 마다프레데쉬(주)와 라자스탄주에 거주한다. 이들의 언어는 인도-아리아군에 속한다.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 양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약 74%가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농업과 관련된 일들에 종사한다. 많은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살만큼의 농작물을 기른다. 밭들은 매우 작으면서 또한 떨어져 있다. 특히 뿔이 있는 말이나 들소, 말, 노새 등의 가축을 기르는 것은 경제의 중요한 모습이다. 힌두의 영향 때문에 이런 동물들은 식용으로 쓰이기보다는 물건들을 나르는데 사용된다.

인도 문화는 본래 힌두교에서 유래했다. 엄격한 카스트제도를 포함하는 힌두의 제도는 인도 사회에 폭넓은 영향을 끼쳐왔다. 카스트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혈통, 혈통 등을 의미하며 동 계급간의 결혼으로 인한 계층적인 카스트로 나

뉘어져 있다. 카스트는 몇몇 종족을 제외하고는 널리 퍼져 있는 인도 사회구조의 기본적인 것이다. 손드와리가 카스트 제도를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문화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할 수가 없다.

많은 손드와리가 라자스탄주에 살고 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라지푸트족이 있다. 군주와 토후쿠 왕들의 시대 동안에 라지푸트는 라자스탄 지역을 수 세기동안 지배했다. 라자스탄은 또한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최하층 민족인 브릴 종족의 고향이다.

신앙

손드와리의 96%가 힌두교

도이며 힌두교라는 용어는 1200년경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 종교는 창시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가르치는 제도도 없다. 이것은 이론이기 보다는 삶의 방법이며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다. 정형화된 신앙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변화해온 관습, 의식, 신앙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힌두교도들은 절대자를 믿는다. 어떤 이들은 사원 안에서 희생제물인 고기를 기쁘게 먹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삶을 존중하고 오직 야채만 먹는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종교가 매우 인격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이지 못하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이 브라만, 시바, 비슈누,

그리고 여신인 샹트리를 숭배할 때 그들은 또한 다른 조그마한 신들, 하신, 배우자, 자손들을 숭배한다. 윤회에 대한 믿음은 매우 적은 힌두교의 통합된 특징 중의 하나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손드와리 인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기독교 관련 자료들이 부족하다. 성경이나 예수영화, 그리고 크리스천라디오방송 등이 아직 이용 불가능하다. 매우 적은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그들의 행로를 격려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손드와리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접하게 하기 위해 뜨거운 기도와 늘어나는 선교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코로나 중식태도 온라인예배 중단 못해”

교회가 온라인예배를 중단하면 복음 증거와 교회 연합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교회성장컨설팅기관 처치앤서스의 대표 톰 레이너 박사는 지난달 31일 자사 사이트에 ‘온라인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7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레이너 박사는 “교회가 대면예배로 돌아가면서 온라인예배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 이는 큰 실수”라며 코로나19가 중식태도 온라인예배를 계속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꼽은 건 대면예배로 전환해도 온라인예배 이용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레이너 박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로 예배를 전환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A교회를 사례로 들었다. A교회는 방역조치에 따라 비대면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예배 참석자수 증가를 경험했다. 대면예배로 전환한 뒤 온라인예배 이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늘고 있다.

건강 업무 등 다양한 이유로 대면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라인예배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음 이유다. 온라인예배가 대면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다. 하지만 레이너 박사는 “손실은 그 이상의 이익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말로 반박했다. 현장예배 성도가 줄어들더라도 온라인예배가 더 많이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온라인예배는 대면예배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부터 비기독교인이나 새로운 교회를 찾는 성도는 온라인예배로 자신이 다닌 교회를 탐색했다. 레이너 박사는 “온라인예배는 교회에 출석하기 전 단계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지역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라인예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레이너 박사는 교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온라인예배 영상을 보냈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B교회를 사례로 들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예배가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C교회는 온라인예배를 드리면서 화면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여러 번 게시했다. 이후 기도를 요청하는 메일이 왔고 그 숫자는 계속 늘었다.

또 온라인예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의 길을 통해 여행했듯 인터넷은 새로운 ‘로마의 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멀티사이트 교회를 결집할 수 있다. 멀티사이트 교회란 여러 지역에 예배당을 둔 교회로 성도들은 온라인예배로 다른 지역 교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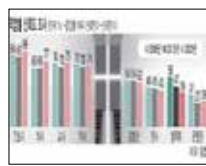
레이너 박사는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의 남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빌리그레이엄 전도 학교 학장, 남침례회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크리스천리소스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후 처치앤서스를 설립했다.

미국인 직업별 신뢰도 성직자 39%로 하락

미국인의 직업별 신뢰도 조사에서 성직자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12월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15개 직업군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갤럽은 1976년부터 매년 직

업별 신뢰도를 조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성직자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10%)와 ‘신뢰한다’(29%)고 답한 응답자는 39%였다. 2004년 이후 가장 신뢰도가 높았던 2006년 조사(58%)에 비해 19% 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기존 최저치였던 2018년(3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응답자들은 신뢰도 1위를 기록한 간호사(89%)를 비롯해 의사(77%) 약사(71%) 등 의료 전문가들을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으로 꼽았다. 타 직업군 대부분이 1년 전 대비 소폭(1-4% 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해 의료전문가 그룹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신뢰도가 상승했다. 특히 의사와 약사는 전년 대비 각각 12% 포인트와 7% 포인트 상승하며 신뢰도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성직자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좀처럼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성직자가 젊은 세대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연령별 분포에서 55세 이상 응답자 2명 중 1명(51%)이 ‘성직자를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18-34세 응답자 중 같은 응답은 4명 중 1명(24%) 수준에 그쳤다.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성직자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4%다.

이영훈 목사,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이사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세계하나님의성회(WGAF) 실행 이사로 선출됐다고 여의도순복음교회가 7일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따르면 조지 우드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은 지난 1일 온라인으로 실시된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이사회에서 이 목사를 2020-2023회기 실행 이사로 선출했다.

조지 우드 총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특별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위상에 주목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 목사의 리더십을 인정해 실행 이사로 추천했다”면서 “이 목사는 3년의 임기 동안 실행이사회를 수행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 목사는 “임기 동안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이사회에서 투표권과 모든 대표권을 성실하게 행사하며 한국 교회와 아시아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세계하나님의성회가 개최하는 온라인 기도회 ‘글로벌 콘서트 오브 프레이어’(Global Concert of Prayer)에서 한국 교회 대표로 기도 인도자로 나선다. 지난 5일에는 싱가포르 트리니티교회 스탠드 도미니여 목사 등 기도회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했다. 기도회는 전 세계 하나님의성회 소속 교회가 지역별로 기도의 끈을 이어나가 50시간 동안 연속해서 기도하는 행사다.

세계하나님의성회는 전 세계 하나님의성회 교단들의 연합기구이며,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는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라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북아시아, 남아시아 8개 지역 대표가 모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는 2010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주일학교 콘텐츠서 인종차별을?’

릭 워렌 미국 새들백교회 목사가 최근 교회 주일학교 교육 콘텐츠 영상에 동양인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 타문화권 인지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무술 사범 복장을 한 남성이 기합소리를 내며 초밥을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동양 문화가 주일학교 교육 현장에서 슬랩스틱 유머의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회가 적절히 못한 콘텐츠로 교육하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미셸 아미 레이에스 아시아계미국인크리스천 공동체(AACC) 부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교육 자료에 타인종의 문화를 조롱하는 내용을 넣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기독교학생회 신학 책임자 제프 루이 목사는 “기획, 촬영, 편집, 웹호스팅에 이르기까지 해당 영상의 제작 과정에 동참한 수많은 관계자를 고려하면 이는 개인의 악의적 의도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회 관계자들이 백인 교회 문화에 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렌 목사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영상의 스크린샷을 보자마자 속상하고 당혹스러웠다. 그 즉시 영상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회의 가족과 같은 수천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어린이들이 놀림을 당했다고 느끼고 그 가족들이 상처받았을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영상이 제작, 게시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워렌 목사는 “이번 사건은 교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문화적·인종적 불감증을 보여준다”면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에 고정관념을 활용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반기독교적인 행위”라고 재차 사과했다.

같은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워렌 목사는 “인종차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타문화권 사람들을 향한 비하가 교육 과정에 담기지 않도록 교회 장로들과 회의를 거쳐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들백교회에는 168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인종 가정들이 있으며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결함을 발견하는 즉시 인정하고 가능한 빨리 수정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일학교 교육 콘텐츠가 문화적 고정관념 문제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성경캠프 커리큘럼에 외국 문화를 테마로 한 콘텐츠가 자주 활용되고, 대중의 문화 인지 감수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엔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아프리카 문화를 테마로 제작한 성경학교 콘텐츠에 어린이가 이스라엘의 노예 역할을 맡고 아프리카 사투리를 흉내내는 과정이 담겨 논란이 됐다. 해당 출판사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 과정을 수정했다.

레이에스 부대표는 “교회가 문화적 감수성이 예민한 컨설턴트를 고용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인들 재난지원금으로 빚부터 갚아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주로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미국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5-39

세 국민들의 54%는 연초에 지급받은 6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26%는 저축을 선택했다.

40-54세 응답자들의 57%도 빚을 갚는 데 재난지원금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저축에 사용했다고 답한 비율은 22%였다.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8명은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대신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WSJ는 팬데믹발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이 이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추가적인 대출로 생계를 꾸려야 할 위험이 큰 만큼 우선적으로 빚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 최대한 ‘금융 불안 신분’을 벗어나려 한다는 설명이다. 미 노동청 통계를 보면 이날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6.3%를 기록했다. 지난주에만 77만9000여명이 실업 급여를 신청했다.

빚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저축으로 몰렸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뉴욕지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이미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3분의 1 이상을 은행 계좌에 예금했다. 연초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저축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기대하는 심리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최대 1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방역 대책에 의해 소비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도 원인으로 언급됐다. 조나단 퍼커 MIT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소비율은 50%에 달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음식점에 가고 쇼핑을 나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예방률 90%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1회차 접종 예방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발표된 아스트라제네카의 1회차 접종 예방률(76%)보다 높은 수치다.



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트 앵글리아대학 연구진은 영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의 ‘대량 접종 프로그램’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1회차 접종 이후 14일째 되는 날부터 효과를 보였다. 이 효과는 점진적으로 상승해 21일째에는 최대 효과를 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90%에 달하는 효능은 이 시점부터 6주간 더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신 접종 직후부터 8일간은 감염률이 최대 2배까지 올라갔는데, 연구진은 접종자들이 백신의 효과를 맹신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연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보건 당국과 화이자 측이 기존에 발표했던 수치를 뒤엎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화이자 측은 1회차 접종 예방률이 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회 접종만으로는 예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접종자 수를 확대하기 위해 임의로 1·2회차 접종 간격을 최대 12주까지 늘리는 미국, 영국 등의 조치는 보건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연구 결과가 확실히 입증된다면 접종 간격을 늘리는 정책이 탄력을 받아 접종 속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연구는 동료 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를 진행한 폴 헨터와 줄리 브레이나드 교수는 “기존 연구는 1회차 접종을 마치고 18일 동안만 결과를 관찰해 효과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접종 간격을 확대해 전체 접종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5. 송창균(1896-?)

송창균(宋昌均)은 1896년경에 평안남도 증산군 성도면 이흥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미국 유학을 꿈꾸고 라재정, 고중명 그리고 강영상과 함께 1915년 8월 17일에 샌프란시스코(상항)에 도착했다. 그는 곧바로 세크라멘토(삭도)로 이주하여 삭도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하였고, 삭도 관립 소학교에 재학하였을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국민회 삭도 지방회 서기를 역임하면서 민족 사랑을 실천했다.

송창균이 1917년 3월에 상항으로 되돌아갔는데 그해 6월의 재미한인학생조사표에 따르면 상항 관립소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이듬해인 1918년 1월에 그는 상항 한인감리교회 청년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해에 한인들인 문을 연 버클리 양성소에 기숙하면서 "다년간 고신을 달게 견디며 공부하던" 그가 26세가 되던 1922년 1월에 버클리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의 나라사랑은 1919년 5월에 결성된 청년혈성단 합류나 1921년 상항 지방회 범무로 선임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성 한인예수교회

버클리 중학교를 졸업한 1922년에 송창균이 나성으로 이동하여 나성에 하나밖에 없던 나성 한인장로교회에 출석했을 것이다. 이듬해 8월에 국민회 나성 지방회 서기로 선임되면서 그가 조국사랑을 이었다. 1924년 6월 4일에 이애나와 결혼하였고, 그해 가을에 남가주 대학에 입학하였다.

1924년 10월 14일에 나성 한인장로교회에 나가던 교인 일부가 나성 자유교회를 조직하고 버드롱 길에 있던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다. 송창균도 이 자유교회에 합류하였다. 본 교회는 나성 한인예수교회라고도 불렸는데 한승곤 목사가 담임했고, 한 목사는 교회 유지발전에 대하여 좋은 방침을 연구하는 위원회와 교회의 제반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발전책을 진행하는 임원회를 두고 교회를 섬겼다.

1926년 4월 29일자의 신한민보에 기고한 송창균의 '진화론의 의미'에서

그의 신앙관을 찾을 수 있다. 그는 글의 말미에서 "종론을 간단히 거두어 말하면 종교와 과학 쌍방이 각자의 주의를 연구 발현함에 방법은 같지 아니 할지라도 자연을 진리로 나타내며 진리를 자연에서 하는 목적은 일반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는 특히 주의하여... 반드시 임할 위해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한 교인의 믿음이며 착실한 과학자의 연구이며 따라서 무흠한 정치가라 할지라"라고 썼었다.

1928년도 위원회는 송창균 외에도 김성권, 임창모, 강영성, 최윤호, 석대원, 박재형, 이암, 김창만, 이영수, 정동립 그리고 최능익으로 구성되었고, 그해 임원회에는 송창균 외에도 김성권, 최윤호, 정동립, 최능익, 강영성, 박재형이 있었다. 그런데 그해 본 교회의

다. 그해 4월에 선정한 평신도 대표 임정수의 노력으로 그해 10월 12일 오전 11시에 미국 남감리교 감회사 데 이비스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린 후 오후 8시 30분에 남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성권이 나성 한인예수교회가 미국 남감리교회로 변경됨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개사회가 열릴 때까지 나성 한인예수교회 위원이었던 강영성, 김성권, 광림대, 임정수, 박재형, 박경신, 황성택을 유사로 두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의 명단에 송창균이 없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31년 1월 15일자 신한민보는 송창균 대 나성 한인감리교회와의 충돌이 정돈되는 줄로 알았는데 또다시 문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송창균이 광림대를 상대로 또다시 기소하였는데 미국 남감리교회 임원회에서는 송창균이 광림대 개인을 상대로 기소하였으나 실은 또다시 본 교회를 상대로 기소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광림대와 황성택을 나성한인감리교회 대표로 선정하여 이를 대처하도록 했다.

본 교회는 지난번에 나성 감사가 송창균을 불러서 앞으로 다시 교회를 소란케 하면 잡아간다라는 명령을 함에도 호감을 가지고 범법사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소란케 한 점을 들었다. 지난번 광림대와 다름 때 안경이 부러져 안경 값과 이 사건이 신문에 게재되어 자신의 명예가 추락하였으므로 명예 배상과 옷이 찢어져 의복배상 등 총

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듬해인 1933년 4월 16일에 대한 독립단을 조직할 때 회장에 송헌주, 서기에 송창균이었는데, 큰 활동이 없다가 본 독립단은 1935년 7월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통합되었다.

나성 한인기독교회 전도사

'재미한인50년사'를 쓴 김원용에 따르면 나성 한인기독교회가 1936년에 설립되었다. 나성 한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던 김중수 목사가 본 교회에서 사면을 당한 후 그해 9월 1일에 동지회 회원이었던 황 휴, 안경호, 김순권, 전 진, 현승걸, 김재선, 송헌영 그리고 송창균과 함께 교회를 조직하고, 그달 21일에 노스 올리브 스트리트에 월세 집을 얻어 나성 한인기독교회라고 하였다. 이로써 송창균이 나성 한인기독교회 창립 교인임을 알게 된다. 이 교회는 하와이 한인기독교회와 같이 장



나성 한인기독교회가 모였을 동지회 회관

다. 그해 보고에 따르면 본 교회에 임교인이 70명이었고 주일예배 평균 출석인원은 20명이었으며 주일학교 학생은 25명이었다.

이듬해 호황 한인기독교회에서 개최한 연회에서 송창균이 하와이 마우이섬 파이어 한인기독교회로 전임되었고, 이 연회에서 2년 임기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파이야교회 목사

송창균은 1939년에 하와이 마우이섬 파이어 한인기독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그가 부임할 때의 교회 형편은 1938년 보고에서 찾을 수 있다. 1938년 보고에 따르면 본 교회의 담임전도사는 이은구였고, 주일학교 교장은 황원일이었다. 재직교인은 79명이었는데 장정 세례교인은 26명이고, 유아세례자는 58명이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은 48명이었으며, 국어학교 학생이 35명이었다.

김형식 목사가 한인선교부의 총부장으로 1939년 9월에 각 섬을 순방하면서 호황 한인기독교회의 예배당 건축 상황을 보고하고 현금해출 것을 호소했다. 이때 마우이 파이어 한인기독교회 교인들이 호황 한인기독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75달러 50센트를 헌금하였다. 푸우네네 6동에 거주하던 본 교회 교인이었던 이동원이 10달러를 호황 한인기독교회 건축비에 써달라고 한 사연을 한인기독교회에 기고한 김형식 목사의 글에서 읽을 수 있다.

"나(이동원)는 간밤 환영회에 왔다가 폐회 전에 갔었습니다. 호황교회에서 부채로 인하여 그처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간직한 살림이라 한 푼 들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여 먼저 갔습니다. 그러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도 사람 노릇을 못해서야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자주 떠올라서 뜬눈으로 밤을 샐습니다. 이것이 약소하오나 어떤 전방에서 취대하여왔으니 보태어 쓰십시오" 하면서 돈 10달러를 주시기에 나(김형식 목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창균이 1940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본 교회의 임원은 10명이었고, 교인수는 95명, 주일학교 학생은 32명, 면려청년회 회원수는 26명, 국어학교 학생수는 18명, 센터를 생략한 재정은 716달러였다. 그는 그해로 이 사적이 만료되었고, 제2부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1955년 1월 27일에 미국으로 귀환한 59세의 송창균에게 2016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을 생하여 대통령 표창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표창장이 전수되지 않아 그의 이름이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 남아있다.

damien.sohn@gmail.com

1936년 나성 한인기독교회 창립 교인, 2년 후 담임전도사로 1939년 하와이 마우이섬 파이어 한인기독교회 담임목사 부임

한승곤 목사가 시카고로 떠났고, 황성택이 부모님을 뵙기 위하여 귀국할 참이어서 이들 두 사람과의 이별에 석별의 깊은 느낌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송창균은 1928년 6월에 남가주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였다. 그해 7월 5일자 신한민보는 "남가주 대학 법학전문과에서 공부하던 송창균 씨는 금번 방학 시기에 법학을 우등 성적으로 졸업하였다더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본 대학교 졸업앨범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나성 한인예수교회는 1930년 5월 11일 주일에 우로싸고 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다. 이날 음식 시상이 있었는데 채소 우등에 임매블, 김치 우등에 이보은, 닭고기 우등에 송국화가 당선되었다. 그해 6월 나성 한인예수교회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드린 예배 시간이 교인들이 원하여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로 변경하였고, 이에 자연히 주일학교 시간도 예배 직전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로 바뀌었

500달러를 송창균이 요구하였다.

신한민보는 송창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소를 취하하라고 권고하면서 그의 대학졸업장이 가석해서 권고하기 마지않고, 백 번 해야 땅신만 당할 고소이고, 지난번에 보도된 교회 풍파 사건이 사실이므로 이번 송창균의 고소가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나성 한인예수교회가 장로교나 감리교가 아닌 초교파 교회로 조직되었고, 미국장로교와 미국감리교가 동양인 선교구역을 지정할 때 하와이와 북가주는 미국감리교 구역으로 남가주는 미국장로교 구역으로 한 결의를 근거하여 송창균이 본 교회가 미국감리교로의 변환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싶다.

나성 한인예수교회에 출석할 때 송창균의 나라사랑은 계속되었다. 그는 1932년 2월에 국어로 된 국판 8면의 '시하정론'을 발행하여 만주사건은 일본의 획책으로 이에 맞서 한국인은 미

로교나 감리교와 관련 없이 초교파로 운영하였다. 본 교회는 본 예배당 건물에서 방세 영업을 하였는데 이곳에서 기숙하던 한인동포가 17명이 되었을 때 한인기독교회 양로원이라고 불렸다.

설립한 지 3개월이 되던 1936년의 12월에 나성 한인기독교회는 1937년도 임원을 선정했다. 1936년 12월 17일자 신한민보에 따르면 이사부에는 부장에 황 휴, 총무에 송창균, 재무에 전 진, 부원에 안경호, 김순권, 현승걸이었다. 그리고 임원부에는 목사에 김중수, 전도사에 전 진, 집사에 김재선과 전승운, 주일학교 교장에 송창균 그리고 청년회장에 공백운이었다. 이로써 송창균이 이사부 총무와 임원부의 주일학교교장을 맡았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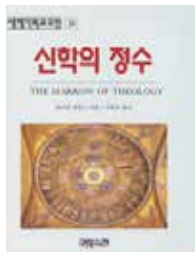
1938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하와이 호놀룰루(호황) 한인기독교회에서 한인기독교회 연회가 있었다. 이날 보고된 바로는 송창균이 나성 한인기독교회의 담임 전도사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역청년회: 오후 2:00 주일영양예배: 오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평일기도: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남가주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양회 (찬스-KDC, 링컨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pc.com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현역청년회: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p> <p>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회: 오후 2:00 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lch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1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4>엘피스가족원</h4> <p>원장: 박은송 목사 (LA매일연합감리교회 협동목사) 성서강사: (월-금) 오전 9:45(101호) 사제강사: 1. 영성사제 2. 교리강사 3. 가정사제 4. 사제사제</p> <p>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연대: 36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4>좋은마을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역)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W), www.cornerstonetn.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토 1부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분당) KM청년회: 오후 2:00(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핼(PIM)선교회, 교회</h4> <p>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교우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p> <p>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p>	<h4>하늘소망교회</h4>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영성'이 임하여 오전 9:30 새벽기도: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im@bi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4)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8)은혜의 언약신학
에임스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적용’이라는 제목이 붙은 24장에서, 언약신학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구속언약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은혜언약인데, 성경은 이것을 ‘새 언약’으로 부른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적용’은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 다음 그는 “은혜언약의 본질은 마지막 날에 신자들이 영광 속에 들어가고 은혜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다양한 역사적 시대를 거치며 계속된다”고 말한다.

은혜언약은 신앙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건적이고, ‘언약

영화의 순서로 진행되는 구원의 서정 앞 단계에 포함시켜 살펴보고 있다(1권 26-30권). 이것은 본질상 은혜언약의 적용을 고려한 에임스의 신학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10)구원 역사의 순서와 적용
다양한 시대에 걸친 언약의 시행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는 독특하게 타락 당시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부터 파생되는 두 가지 핵심교리,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구속의 적용을 언급한다. 에임스는 구원의 서정의 각 요소를 취하여, 그것을 자신이 구분한 각각의 언약시대의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적용시켰다. 구원의 서정 속에 예정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는 택하심 받은 자의 영원

26:20). 이 회개는 신앙과 동일한 원인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회개는 신앙보다 먼저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한다.

나)칭의(27장): 그리스도와 연합의 축복들에 참여하려면,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 올바르게 복되게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엡 1:3, 롬8:32). 칭의란 하나님께서 신앙에서 포착된 그리스도로서 신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의롭고 생명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판단이다. 이 칭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되는데(빌3:9), 이러한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불린다. 칭의하는

관된다. 여기서 성화는 신앙과 회개와 관련되는 인간 안에서 변화되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를 의미하고, 회개는 기질(성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엡4:24)의 성결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의 일치(약 1:25; 롬6:4; 벵후1:4)를 위한 것이다.

마)영화(30장): 영화는 인간 안에서의 비참함 혹은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행복으로의 진정한 변화이다(롬8:30). 영화의 목적은 강박(beautification), 축복, 영생, 영화,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불멸의 상속이라고 불

구원의 서정은 부르심을 통한 연합,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순서로 진행 구원 서정의 논리적 요소들은 구속사 통한 언약시행의 연대적 순서와 중복

의 조건이 언약 속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은혜언약(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eology)”을 쓴 존 폰 로어(John von Rohr)가 지적하는 것처럼 “에임스에게 있어서 언약 조건의 성취에 대한 약속은 그 자체로 언약의 약속이었다.” 결론적으로 은혜가 모든 것을 행하고 신자는 약속을 주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9)확신의 한 부분으로서의 예정교리
에임스의 책의 전반부에서 (25장에서 비로소 예정교리를 다룸)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 교리는 앞부분의 하나님의 작정부분(1권7장)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에임스가 예정교리를 확신교리의 한 부분으로 삼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확신의 은혜(예정)를 ‘부르심을 통한 연합’, 칭의, 양자됨, 성화,

한 삶의 국면을 구속사의 시간 및 역사적 진행과정에 그대로 일치시켰다. 따라서 구원의 서정의 논리적 요소들은 구속사를 통한 언약의 시행의 연대적 순서와 중복돼 있다. 구속사의 각 시기는 신자들의 조건 또는 상태와 상응적인 관계로 통합되어 있다(1권 30-39장).

구속의 적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다른 하나는 그런 연합에서 나오는 유익들에 참여함이다(빌3:9).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로, 이를 통하여 인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축복들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다(요일5:12).

가)부르심(26장): 부르심이란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벵전2:4, 엡4:12). 부르심은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엡1:17-9). 부르심에 대한 영적으로 인해 부르심은 회심이라고 불리운다(행

신앙은 본성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의 특별하고 견고한 확신(persuasion)을 가져오고, 이런 확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다)양자됨(28장):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로서 인도 아들 됨의 영예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판단이다(요일1:12). 이런 판단은 칭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양자됨은 신앙으로부터 유래하고, 칭의는 신앙과 양자 됨 사이에 온다. 양자됨은 본성상 칭의 안에서 발견되는 화해를 필요로 하며 이를 전제한다. 이 이들의 지위와 함께 상속자의 신분도 얻는다(롬8:17). 양자됨의 진정한 증거가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롬8:15-16, 23; 갈4:5-7).

라)성화(29장): 신자의 상태의 실제적인 변화란 인간 자신의 성질들(qualities)이 변환되는 것이다(고후5:17). 이런 성질들의 변화는 성화라는 정당하고 영예로운 선이든지 영화라는 완전하고 승화된 선과 연

린다(엡1:3; 요3:36; 벵후1:3). 이 모든 것은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엡3:17). 완전한 영화는 영화와 몸에서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고 전적인 완전성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11)구원의 순서의 연관성
에임스는 선택, 구속,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영화를 각 시대별 은혜 언약의 시행 기관과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보여 주셨는지를 설명한다(1권 38, 14-35). 여기서 구원 역사의 시간적인 국면과 영원한 국면이 함께 결합되어진다.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의 논리적이고 실존적인 요소들이 시간 순서(ordo temporum)의 연대별 시기와 통합된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예정과 언약의 조화로운 통일로 인하여 명확하고 확실하게 언약의 유익을 받는다. (10면으로 계속)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종이나무성품학교 대표)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분별력 있게 자녀 키우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image)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복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분의 손길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과 논란을 일으키며 인류의 역사에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반격하는 흐름이 역사가 되어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에서 시작한 유토피아는 마르크시즘(Marxism)으로 발전하여 공산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집단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사회주의 제도를 만들어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이분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마침내 한 세기 동안 대결구도였던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면서 걸로로는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한 듯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죽지 않고 오히려 ‘네오마르크시즘(Neo-Marxism)’이라는 한 차원 더 세련되고 감각적인 옷으로 갈아입은 채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인권, 인종 차별금지, 다문화 포용, 관용, 인도주의, 노동자 권익 보호, 여성 차별금지, 환경보호, 세계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선한 얼굴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체주의, 세속주의, 진리가 없는 유토피아 사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흔들어 가정과 학교,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대한 맥락입니다.

마르크시즘이 경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네오마르크시즘은 문화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의 ‘성자유, 성혁명, 성정치’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성적 욕망을 충족하도록 부추기지요. 성(性)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며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현대의 문화가 되고 유행처럼 번져 우리 삶과 자녀들의 교과서 속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며 셋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일과 나를 향한 온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마음과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자녀를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 것이요.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영숙, 2005)입니다. 성품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의 표현입니다.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성품이 되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성품이 되지요.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 감정, 행동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따른다면선 악을 본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히 흘러보내야 하지요.

(10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기도: 오전 05:30 새벽기도: 오전 6:0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9: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718)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0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 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빙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 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인종평화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ly Ave., Hicksville, NY 11801	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 3부 오후 4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천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들

출애굽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작은 집안에 엎드려 있었듯이 현재 우리는 코비드의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제한된 공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공간의 크기들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작은 벽장에 갇혀 있든지 좁더 넓은 체육관에 갇혀 있든지 우리의 자유가 엄청 제한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closet Christian)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용기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듯이 조용하게 은밀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런데 벽장 속을 들여다보다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벽



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장 속에 있지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변화 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다. 어두운 벽장 속에 있는 두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6:6)고 말씀하셨다. 그 어두운 동굴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

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와 다니엘 등의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셨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들을 셀수 없이 겪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서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구원하셨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하나님을 마음껏 무시하고 대적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통해서 온갖 음란과 타락을 일삼는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벽장 속에서 하나님

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기도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두운 벽장 속에 숨어있는 세 번째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캄캄한 벽장 속으로 숨어들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걸었다(요20:19). 한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는 다투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흔적이 있고, 한 차가운 벽장 속에는 안네가 2년 동안 무서운 나치를 피해서 두려운 눈망울로 흘러 보낸 안네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으며, 핍박의 칼을 피해서 카타콤과 카파도기아 동굴에 숨어들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현대에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나 어두운 벽장에서 비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실,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맞는 어법일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 9:26)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잠시 동안 벽장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지난 간 후에 우리는 벽장에서 나와서(coming out)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박해를 피해서 벽장으로 숨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dik0184@yahoo.com



미국신대륙 정복사의 두 가지 과오 인디언전쟁과 노예제도...그 역사왜곡(2)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1)인디언과 정착민 백인들의 과의 전쟁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도착한 초기에 굶주리고 험하고 병들어 곤경에 처했을 때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각종 식량과 가죽 등 입을 것을 갖다 주면서 온정과 구원의 손길을 폈다. 이때 청교도들은 감격에 넘쳐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 믿고 환대하였다. 그런데 다양한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포함된 백인 정착민들과 인디언들은 평화협정을 맺고 있었지만 백인들은 이 협정을 파기하고 인디언의 땅을 침범했다. 백인 정착민의 팽창은 원주민 인디언 부족을 피할 수 없는 식민지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리나라를 침략하러 온 것이다." 또한 일부 청교도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을 이교도라고 무시하고 박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오페차나카노 등 포우하탄 원주민 인디언들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Jamestown Massacre) 정착촌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정착민들을 학살한다. 이것이 1622년 3월 22일에 발생한 제임스타운 학살(Massacre) 사건이다. 주변의 정착촌에 있던 영국인들은 포우하탄 인디언들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 당시 영국 정착민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도 347명을 살해당했고, 또한 집이나 밭도 불태워

그러나 이러한 청교도 신앙은 인디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1637년 민병대가 조직되어 페코스 지역에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원주민 촌을 습격하여 500명 인디언 학살을 주도하였다. 전쟁을 주도한 지도자 존 메이슨(John Mitchell Mason)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들을 비롯으

단면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자유와 문명과 종교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서진(西進)하는 찬란한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숲 속에 사는 야만인들에게서 그들의 숲과 강과 땅을 빼앗은 것은 당연지사이다"라고 말하므로 정복



땅을 사고파는 문화관습 없었던 인디언들과 조약을 땅 샀다고 생각 인디언과 전쟁은 필연적...콜럼버스함대 타이노족 공격, 50년후 멸족

져 버렸다 '이때부터 정착민들은 원주민을 이교도, 살인자로 바라보았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에서 하루아침에 마귀가 보내준 사탄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이에 서로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 청교도들은 정당방위(?) 입장에서 즉각 보복하였고, 서로 계속 밀고 밀리는 사생결단(死生決斷)의 공방을 벌였다. 이렇게 서로 반복되는 도발과 살상으로 인하여 백인 정착민(White Man)들과 원주민 인디언과의 전면 전쟁이 약 270년 동안 지속되었다. 1630년 이후 이민 온 매사추세츠의 첫 영국 식민지 주지사 존 윈드롭(John Winthrop)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영을 섬기는 자들을 사형에 처했다.

심이며 그들을 뜨거운 오븐에 구우셨다"라고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에 동조한 과격 청교도들은 "우리는 오늘 600명의 이교도들을 지옥으로 보냈다"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다. 청교도 미주 이주 이후, 약 270년 동안에 백인들은 전 북미지역의 인디언의 땅을 빼앗거나 매입하고 원주민들을 강제로 수용소에 이주시켜 버렸다. 이와 같이 과격 극단(極端)의 청교도(Puritan)들은 자신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이라는 명목과 이교도라고 폄박을 가했던 것이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전지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의 어두운

전쟁의 명분을 확실하게 했다. 2)인디언과 정착민 백인과의 전쟁의 결과 이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미국 측과 인디언 측이 입은 손실 통계를 보면 1620년부터 1850년까지의 손실 통계 기록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레고리 미치노 등이 쓴 교전 기록에 의하면 1850년에서 1890년 사이에만 21,586명의 시민과 병사가 사망, 부상 또는 포로가 된다. 러셀 손튼(Russell Thornton)이 빈약한 정부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45,000명의 인디언과 19,000명의 백인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이 후자의 추정치 중에는 변경의 학살에 의해 비전투 민간인들이 중

중 살해되었기 때문에 모두 여성, 어린이 희생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저자가 적는 5000명에서, 많게는 50만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집고 넘어갈 것은 쌍방의 잔학(殘虐)함이다. 인디언은 그 잔인한 전투방식으로, 미국은 파괴적인 작전 실행으로 드러난 잔학성이다. 또한 토착 인디언 워드 처칠(Ward LeRoy Churchill)은 그의 저서 '그들이 온 후'에서 "1894년에 미국연방센서스국은 미국이 한 세기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원주민을 상대로 '40차례 이상' 전쟁을 벌여 이 과정에서 자체의 추정치 3만 명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로 무차별 학살을 했기에 무고한 비전투 민간인들 특히 희생자 중 여성과 어린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 비극이요, 참극이었다. 1996년 4월 26일 제 42대 미 대통령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가 참석한 자리에서 미연합감리교회가 총회 차원에서 132년 전 인디언 학살 사건을 회개했던 일이 있다. 목사요, 감리교의 영웅이었던 치버턴(John

건 다 폄화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되고 그 공과(功過)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역사왜곡이 되기 때문이다. 3)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와 재국주의 열광들 1620년 청교도 미국 이주로부터 아메리카 인디언과 백인 정착민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 이 시기라는 사실이다. 이미 15세기 아메리카는 콜럼버스를 필두로 하여 제국주의 열광들의 각축장이었다. 특히 백인과 아메리칸 인디언과의 전쟁은 콜럼버스의 상륙부터 시작된 다. 콜럼버스는 중미의 아메리칸 인디언 지파들을 함대를 이끌고 몇 년 동안 학살했으며, 그 인구를 격감시켰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황금 채집을 위해 노예로 만들었으며 생활권을 빼앗긴 인디언들은 기아와 역병에 시달리며 그 인구가 더 줄어들었다. 콜럼버스에 의한 대량 학살이 전염병에 의한 인디언 격감을 초래한 것이다. 아메리카 최초의 성직자였던 라스 카사스(Bartolome De Las Casas)가 쓴 "인디언 파괴에 관한 간결한 보고"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1억 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학살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492년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스페인으로 돌아간 콜럼버스는 다음해 17척의 군함을 이끌고 다시 에스파냐(현재의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바로 토착 타이노족을 노예화하고 멸종시키는 정책에 착수했다. 이 정책으로 1493년에 800만 있었던 타이노족은 1496년에는 300만, 1500년경에는 10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그리고 1542년에는 겨우 200명 남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이들은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했을 당시 1500만 명에 달했던 카리브해 전역의 다른 인디언들과 함께 멸종되었다." kimjoyh@gmail.com

미주한인교계 이들과 교류 재고해야

IM선교회, BTJ열방센터 코비드 감염 사회적 물의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일부 선교회에서의 코비드19 확진자 발생 및 확산으로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제2의 신전지'라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방학 때 2천명 학생들과 수련회를 가졌는데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IM선교회는 대전 IEM국제학

교발 확진자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전국적으로 감염을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M선교회는 전국 25개 교회에서 TCS국제학교 등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이를 통한 확산 우려도 크다. 실제 지난 1월 16일 흥천으로 수련회를 가졌던 대전 IM선교회 소속 청년 훈련과정 학생과 인솔 목사 부부 등 40명 가운데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말

부터 2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용인 수지산성교회도 IM선교회 산하 요셉티시예스국제학교를 운영 중이었다. 의학 적 상식과 종교적 신앙을 혼동한 마이클 조의 주장은 방역 무시로 이어졌다. IM선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고교 과정과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대전 IEM국제학교, IEM국제학교 수료생들이 전국에 퍼져 활동하는 TCS국제학교, 공부방 성격의 CAS기독교문화학교, 20~50대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MTS청년훈련학교 등 전국에 24개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식 교육

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이다. 한대연구소라는 이름의 시설도 17곳이 있다. 이들 시설 중 IEM국제학교와 TCS국제학교의 경우 여러 학생들이 기숙사 한 방에 많게는 20명이 생활해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코로나 방역에 취약한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 속에서 많은 인원이 밀접 접촉하며 집단생활한 탓에 IEM국제학교 133명 등 IM선교회 산하 41개 시설 구성원 269명(1월 27일 오후 10시 기준)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전체

구성원 866명 중 31.1%가 감염된 것이다. 선교회 관련 시설의 연쇄 감염까지 더하면 이들 시설을 매개로 최소 34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마이클조 선교사는 예상개혁소속 목회자다. 그러나 그가 안수를 받았다는 예상개혁 송촌동측 100회기에는 그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허위목사안수 의혹이 일어났다. 인터콧선교회(대표 최바울) 산하 BTJ열방센터 역시 2020년부터 지속적인 집회를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코비드19 확진자가 확산이 됐다. 경북상주에 위치한 BTJ열방

센터의 경우 지난 1월7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센터폐쇄결정에 대한 반발로 시설폐쇄조치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상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박문수 총회장 이름으로 발표한 14일 성명에서 침례회 총회는 "최근 정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수백명의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콧선교회가 방역당국에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11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기사판

“스트레스 & 감정코칭 워크숍”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스트레스 & 감정코칭 워크숍”이 2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미동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정정숙 박사, 김병용 박사, 등록비는 200달러. 등록은 웹사이트 www.familytouchusa.org/ProgramREG에 하면 된다.

▲문의: (201)242-4422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

낮은올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세우기는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가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미주동부시간) 열린다. 커리큘럼은 1)회복과 생명력 - 축복의 통로로 서기 2)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 커뮤니케이션 3)AI, 4차 산업혁명시대, 다음세대의 비전과 직업 4)스마트폰시대 미디어 분별과 정복, 중독 다스리기. 등록비는 60달러.

▲문의: (646)300-4790

청소년 위한 삼일절 맞이 한국역사 강연 세미나

KCC한인동포회관(부관장 남경문)은 오는 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한국역사 강연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번째 개최되는 역사 강연 세미나는 미국에 사는 2세대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와 더불어 한국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2월 25일(목)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독도와 동해” 주제로 개최되는 세미나 강사는 전 한국외국어대 교수이며 코리아리서치 원장인 주동완 교수. 현 6학년부터 12학년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세미나에 참석 가능하며 강연은 영어로 진행된다.

▲등록신청: heritage@kccus.org



뉴욕나눔의집 정기 이사회가 지난 7일 저녁 줌으로 열렸다.

쉼터 모금액 90,940달러 보고

뉴욕나눔의집 정기 이사회 9명 참석

한인노숙인 비영리기관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이사회(이사장 최재복 장로)가 2월 7일 오후 8시 Zoom 미팅으로 열렸다.

이날 최재복 이사장을 포함 구자범 목사, 박진하 목사, 이영만 목사, 정인국 장로, 장근식 장로, 박성양 장로, 김성윤 집사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나눔의집은 현재 노숙인 쉼터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쉼터 구입 기금모금 담당 김성윤 이사는 현재 총 90,940달러가 모금됐다고 보고했다.

이번 모금은 장기화 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고 재정이 바닥나거나 건강문제, 정신건강문제로 노숙위기에 있었던 한인동포들이 거주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쉼터를 위한 모금이다. 나눔의집은 이

번 6월 리스가 끝나 이전해야 하는데 2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렌트하는 주택을 찾을 수 없어 지난 12월 후원의 밤을 시작으로 모금운동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30일에는 이사인 구자범 목사(뉴욕광염교회 담임)가 5백 달러를 후원하기도 했다. 쉼터 기금 모금 후 원문의는 박성원 목사(718-683-8884)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이민자보호교회 전국심포지엄이 줌으로 진행되고 있다.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가야할 길”

이민자보호교회 전국심포지엄, 미 19개주와 한국서 참가

2021년 이민자보호교회(이보교) 네트워크 심포지엄이 2월 4일 오후 7시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가야할 길” 주제로 줌 화상으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보교 4번째 심포지엄이며 전국적으로는 2번째로 이보교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4년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은 미국 19개주와 한국 등에서 최대 351명이 참가했으며,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심포지엄은 1부 예배와 2부 심포지엄으로 진행됐으며, 심포지엄은 3개의 주제로 발표와 논찬이 이어졌다.

이민자보호교회는 4년 전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를 돕기 위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활동범위가 복지와 정치, 그리고 타민족과 연대까지 크게 확대됐다.

지역적으로도 확장돼 뉴욕 이보교(위원장 조원태 목사)가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기도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마치고 현장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뜻 이뤄가도록 기도하겠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기도회 및 회장이취임식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대뉴욕지회 기도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2월 6일 오전 8시 뉴욕그레이트백교회(양민석 목사)에서 대면과 온라인으로 열렸다. 한국본부 및 뉴욕교계 관계자들은 줌을 이용한 화상으로 참석했다.

한국 본부는 지난해 11월 순성대 장로를 뉴욕지회 2대 회장으로 임명했다. 순성대 장로는 뉴욕교협 이사장 및 부회장, 뉴욕장로연합회 회장, 뉴욕장로성가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회장 순성대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 회장과 임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뉴욕지회의 사역 방향성을 소개했다.

순 회장은 “한반도 화해와 협력, 평화적인 남북통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안녕과 질서기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역으로 임원중심의 월례기도회(줌), 방송을 통한 1분 기도회 등을 알리며 기도와 참여를 당부했다.

초대 회장 강현석 장로는 간증을 통한 이임사에서 “팬데믹의 어려운 시점에 신실하고 탁월한 순성대 신임회장의 지도력을 믿는다”며, “최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뉴욕지회가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이취임식은 사회 박용기 장로(수석 부회장), 기도 이계훈 장로(부회장), 이임사 강현석 장로(직전 회장), 취임사 순성대 장로(회장), 회기전달, 축사, 권면, 신임 회장이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와 감사장 전달, 본부를 대신하여 직전 회장이 신임 회장에게 임명장 전

달, 신임 회장이 각 임원들에게 임명장 전달, 광고 장세활 장로(사무총장), 폐회기도 박해용 장로(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축사는 양민석 목사(뉴욕교협 직전회장), 이정환 목사(뉴저지교협 회장), 이봉관 장로(한국본부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면은 두상달 장로(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명예회장)과 이의철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가 했다.

이취임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태수 목사 인도로 개회기도 마바울 목사, 성경봉독 정훈 간사, 설교 문석호 목사, 특별기도, 축도 김진화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기도는 장세활 장로가 조국과 미국을 위해, 송윤섭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가 뉴욕교계를 위해 기도했다.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 목사는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자기집으로”(삼상15:34-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개인을 위한 기도도 의미 있지만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은혜”라며 “후한스러워가는 종말의 시대에 조국과 미국의 현실을 보며 모든 이들이 일상으로 힘을 모아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뉴욕지회 조직은 △명예회장 강현석 장로 △신임회장 순성대 장로 △수석 부회장 박용기 장로 △목사부 회장 김태수 목사, 마바울 목사 △평신도부회장 이계훈 장로, 박해용 장로, 황창영 장로 △사무총장 장세활 장로 △간사 정훈 집사 등이다.

(유원정 기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설립18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가 설립 18주년을 맞아 2월 7일 오후 4시30분 감사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가 소속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목회자들이 순서를 맡았다.

이날 임직식을 통해 2명(엄갑룡, 정철호)의 장로장립과 2명의 권사(이현숙, 정소라)가 취임했다.

허윤준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장로 임직식은 임직자 서약 후 안수하고 허윤준 목사가 “엘리사에 입했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이 임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게 하소서.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자원하여 충성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장로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 권사 임직식이 진행돼 서약하고 허윤준 목사가 임직기도를 인도했다.

이길호 목사(뉴욕성실장로교회)는 축사 및 권면을 통해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세우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세워주셨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목적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하라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 충성되고 생명 바치는 일꾼이 되라”고 당부하며 “임직자들이 인품과 실력을 갖춘 허윤준 담임목사와 같이 교회에 세워나가며 후에 큰 기쁨이라는 고백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했다.

임직자들이 교회에, 교회에서 임직자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증정했다. 특히 임직자들은 교회와 준비 중인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렸다.

담사를 통해 엄갑룡 장로는 “18년의 성장기를 거쳐 성인의 길에 들어선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정확무오한 말씀만 붙잡고 눈에 보이는 외적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장을 추구해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건강하고 진실된 지체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서로가 배려하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교회, 반목하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교회와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라며 특히 18년 동안 수고한 담임목사와 사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직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이윤석 목사(뉴욕노회 서기, 부르클린제일교회), 설교 이길호 목사(뉴욕성실장로교회), 봉헌기도 정기태 목사(부서기,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임직식, 축도 이종원 목사(부회회장, 뉴욕새사람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길호 목사는 “충성된 일꾼”(삼하23:15-1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성경에 많은 귀하고 복된 말이 있지만 생각할수록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말”이라며 충성된 임직자들이 되기를 부탁했다.

이 목사는 “충성된 일꾼은 첫째, 하나님의 소원에 민감한 사람 둘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셋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에서 우리 인생을 소풍에 비유한 것을 소개하며 “크리스천의 삶은 미래의 주님을 만나는 그 미래의 사건을 현재화 시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며 매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 시간을 생각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라. 나아가 그 시간을 생각하며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라”라고 당부했다.

뉴욕새생명장로교회는 2003년 2월 뉴욕아카데미를 예배처소로 정하고 첫 주일예배를 드렸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설립18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독교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예를 들어 모세 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속이 나타났고, 속죄제사 제도를 통해 죄의가 표현되었고 첫 소산을 바치는 제도를 통해 양자가 설명되고 정결법을 통해 성화를 보여 주며 땅의 상속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영화를 나타내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종종 개혁과 신학의 걸림돌이 되었던 언약과 작정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면을 극복하였다. 이와 같이 에임스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활동과 언약적인 참여를 동시에 정당화하는, 그리고 내적으로 일관된 언약신학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12)구속의 적용으로서의 교리들(31-41장)

에임스는 구속의 적용 곧 교회에 대한 주제를 두 장에 걸쳐 다룬다. 신비적이고 불가시적인 교회(1권 31장)와 제도적이고 가시적인 교회(1권 32장)를 다룬 다음, 그는 구속의 적용의 길, 또는 수단을 언급하는데, 성경(1권 34장), 교회직원(1권 33, 35장), 성례(1권 26, 41장), 그리고 교회 권징(1권 37장)의 순서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에임스는 구속의 적용의 시행, 즉 하나님께서 은혜언약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를 설명한다(1권 38, 39, 41장). 그는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함으로써 순차적인 언약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각 시대의 언약의 실행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더 완전한 상태로’, ‘일반적이고 모호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더 명확한 상태로’ 전개되었음을 보여 준다(1권 38, 2-3장).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은혜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일반적 약속으로 시행되었다(1권 38, 14장).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은혜언약은 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따라 시행되었다(1권 38, 20장).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교회는 어린아이 상태로 은혜언약 아래 있었고, 교회의 사역은 거의 항상 신 자자들에게 의해 행해진 특별한 사역이었다(1권 38, 12장).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시고 오신 때부터 구원을 타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두려움과 속박의 영 아래 있을 때와 다르게 양자의 영을 통해 영적 후사로서 은혜언약의 적용을 자유롭게 받는다(1장 38, 8-9, 1장 39, 9장). 세계의 종말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현재에서 시작된 구속의 적용이 완성될 것이다(1권 41, 1장).

hyojungyoo2@yahoo.com

성품칼럼

(9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분받으며 진리 안에서 성숙해질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의 말씀이니라”(렘 9:24).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향해 경경하시고 긍정적인 태도로 기뻐하시며 배려와 감사, 순종으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성품과, 인쇄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적 지혜로 ‘공의’로우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깊이 알고 배우도록, 세상의 일그러진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goodtreeusa@gmail.com



APU한인동문회 주최 해석학 세미나가 줌으로 열렸다

관찰, 이해, 적용의 상황과 개념 중요 APU한인동문회 해석학 세미나, 강사 박성민 박사

APU한인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 주최 세미나가 2월 1일 오후 8시 줌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해석학에 대해 다뤄졌으며 박성민 박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박성민 박사는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이다. 상황에 필요한 단어가 있다. 그것이 개념”이라며 “과거의 상황과 개념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개념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해석은 △첫째 관찰이다. 관찰은 텍스트 상황 개념 자세히 보고 정보를 만들어 낸다. 이해할하는 자는 관찰을 잘하는 자다.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청이 잘되는 자는 어떤 이야기도 잘 듣는다. △둘째 이해다. 관찰된 것을 관찰된 것으로 끝나면 단지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친다. 관찰은 그 당시 무엇이었던가 것이다. 그 사람이 무슨 상황이나는 것이다. 이해는 지금 나한테는 무슨 의미이나이다. △세 번째 적용이다. 무엇을 할 것이냐다. 선 이해 혹은 선 경험을 바탕으로 선 이해가 나온다. 선지식 많이 배우고 겪은 자가 이해의 폭이 넓다. 중요한 것은 관찰이 오면 이해가 가는데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해가 잘된다. 선경험이 좋게도 나쁘게도 작용한다. 내가 남의 것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황과 개념 현재 나의 상황과 개념을 연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석은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가 빠지면 분능밖에 안 남는다”며 “성경을 해석할 때 오래전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은 번역의 오류가 있는 책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고 최고 최선의 책이고 필요 충분한 책이다. 그 책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고 성경님의 감동으로 성경작가가 썼고 내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말씀 속에 계신 성령이 내안에 계신 성령과 한 성령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육신사건으로 영원과 시간이 연결되고 성령이 해석해 주신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33년의 삶이 있었기에 우리와 공통분모가 생겼다”며 “33년의 삶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이었을 뿐이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다. 십자가는 해석학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관찰, 해석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 존 윌레스 전 총장 소천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16대 총장 존윌레스 박사가 지난 1월 28일 소천했다. 향년 66세.

팜스프링 인근 뷰먼트 시에서 1954년 2월 11일 농부의 둘째아들로 출생한 존윌레스 박사는 APU에서 경영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샌디에고의 미국 국제대학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또한 보스턴의 하버드대학 교육관리연구소에서 공부했다. 그 후 1993년 APU에서 2년간의 안식년으로 일리노이 주 배링턴의 윌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에서 성인사역, 소규모 단체 및 전략 계획의 목사로 봉사했다.

고인은 APU에서 보안 및 주택 담당 이사(1976-78), 보조 서비스 담당이사(1978-79), 학생 부학장(1979-81), 학생학장(1981-91), 학생생활담당 부총장(1991-93), 수석부총장(1995-97) 등을 역임했으며 리차드 E. 펠릭스 박사의 총장은 퇴에 이어 2000년 7월 1일 총장 대행 맡았다.

2001년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총장 재직시 예배당 팀에 리더십을 제공하고, 매년 대학 전체의 리더십 수련회를 개발하고



고 존윌레스 APU 16대 총장이 생전 학생들과 단체사진을 찍고있는 모습

실행했으며, 학생생활, 학부 및 대학원 입학, 그리고 아웃리치 부처 연구소와 같은 분야에 감독을 제공했다.

고인은 한국교회와 관계도 돈독했다. 서울명성교회, 광명교회에서 설교와 세미나 강사로 참여했으며, 전남함평에서 해당지역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진행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화여대, 연세대, 백석대, 장신대, 서울신대 등과 MOU 등으로 협력을 해왔다.

그는 지난 2005년 임파선 암에 걸려 4년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총장직을 수행했으며 2018년 암이 재발했다. 건강악화로 인해 지난 2019년 5월말 은퇴함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났으며 1월 28일 오후 3시3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게일 윌레스 여사, 두 아들과 목사인

서부교계 게시판

UMC 사순절 웨비나 '온라인 소그룹 사역훈련' 개최 연합감리교회 글로벌 미니스트리와 한인목회강화협회(회장 정희수 감독,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가 주관하는 사순절 웨비나 온라인 소그룹 사역훈련이 '만나고 싶습니다'란 주제로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일, 3월 8일, 3월 15일 등 매주 월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번 웨비나는 첫째 날 '새출발-소그룹 사역', 둘째 날 '말씀, 삶, 나눔', 셋째 날 '좋은 질문 만들기', 넷째 날 '온라인 소그룹리더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이성현 목사(샌디에고 KUMC), 이성호 목사(콩코드UMC), 조주찬 원장(소그룹 아카데미 대표), 장학순 목사(한인목회강화협회) 등이다. ▲문의: (917)446-0966

수잔 정 박사 북 콘서트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은 수잔 정 박사가 펴낸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 북 콘서트를 오는 2월 25일(목) 오후 8시(서부시간)에 줌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참가는 무료이며 이번 북 콘서트 참가자들 중 추첨을 통해 저자의 사인이 담긴 책을 증정한다. ▲사전등록 연락처: www.kasecca.org

'은혜가정학교' 오픈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 부부의 기능과 역할, 효과적 대화, 자녀 문제' 등을 주제로 은혜가정학교를 진행한다. 2월 6일부터 시작된 은혜가정학교는 오는 3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본 학교를 통해 '행복한 가정은 더욱 행복하게, 건강한 가정은 더욱 건강하기'를 소원하며 진행하고 있다. ▲문의: (714)742-2428 김재원 목사

“이미 날 살게 하네”

찬양사역자 병하 첫 디지털 싱글 출시

라스베이거스 지역 한인으로는 유일한 여성 예배사역자인 병하의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이미 날 살게 하네”이 지난 1월 28일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를 통해 출시됐다.

병하는 필그림교회 찬양팀 싱어로 활동하며 라스베이거스 웨이브 청년 연합집회, 원하트 한 여름 밤의 축제 등 다양한 찬양 집회 및 콘서트에 참여했다.

피터박 목사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모든 길은 베이거스로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막위에 황폐한 땅에 세워진 조그마한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해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관광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베이거스에는 전 세계



찬양사역자 병하의 첫싱글이 출시됐다

에서 가장 화려한 Show, Hotel, Food, Gamble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을 최고로 제공하는 도시다. 그러나 죄악과 쾌락이 가장 만연한 베가스다. 다른 이름은 Sin City”라며 “만족을 위해 왔으나 참된 만족이 없는 그곳이 도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병하도 그 중 한 사람이며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예배자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병하의 찬양과 고백은 한결같이 하나님 한분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과 고백이 녹아

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고 화려한 경력도 없지만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한 첫 싱글을 들으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원하트와 함께 부른 찬양 ‘이미 날 살게 하네’는 매일 매일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는 그 삶에 대한 감사를 담은 찬양이다. 이 찬양을 통해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인 찬양사역자 병하는 소망교회 찬양팀 싱어, 하나교회 찬양인도, 필그림교회 찬양팀 싱어, 2018라스베가스 웨이브 청년 연합에 찬양인도, 콘서트원하트 한 여름밤의 축제, in LANWYA We are one 기부 콘서트, in Portland Chinese Baptist Church 찬양집회, in LV Hope Baptist Church 찬양 콘서트 등에 참여했다.

“이미 날 살게 하네” 음원은 애플뮤직 music.apple.com/us/album/the-lord-rescued-me-single/1550730605와 스포티파이 open.spotify.com/album/24VYp4vdDiPX1847wTw7v6?highlight=spotify:track:6SPpg2pilQgjEPcXmSKe0M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유튜브 youtu.be/Ddh22zBRTmU를 통해 들을 수 있다.

20일, 21일, 27일 온라인으로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

‘영혼구원을 위한 말씀 소그룹 사역’인 커피브레이크에서 ‘소그룹인도자를 위한 워크숍’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계속 된다.

1970년대 전도를 목적으로 시작된 커피브레이크는 북미주 개혁교회(CRC)에 속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 미주 뿐 아니라 현재 세계 55개 교단에서 전도와 제자양육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 2만 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으며,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도 온라인을 통해 거의 800명이 양육을 받을 정도로 유익함을 인정받고 있다.

팬데믹으로 처음 온라인 워크숍이 처음 시작될 때는 참여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점차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하던 과정을 온라인의 특성상 2-3회로 나눠 하면서 집중도 역시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은 왜 소그룹을 해야 하는지, 질문으로 인도하는 성경 발견학습, 인도자 리더십과 소그룹 전도까지 다루고 있어 커피브레이크 참여자 뿐 아니라 교회 소그룹(목장, 셀, 순 등)의 리더와 교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은숙 홍보팀장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때,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말씀으로 변화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소그룹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 일정은 2월 2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서부시간)/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동부시간), 21(주일) 오후 4시부터 6시(서부시간)/오후 7시부터 9시(동부시간), 27일(토) 오전 9시부터 11시(서부시간)/오후 12시부터 2시30분(동부시간)이며 등록비는 45달러(일본), 25달러(목회자 및 사모)다. ▲문의: 송지영 간사(562-302-2245) info@KoreanCoffeeBreak.org (기사제공: 커피브레이크)

고 정연성 목사 천국환송예배 및 하관식

고 정연성 목사 천국환송예배 및 하관식이 지난 2월 4일 오후 12시 30분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으로 열렸다.

팔로스버디스에 위치한 Green Hills Memorial Park에서 장례위원장 장광춘 목사(총회장)의 사회로 천국환송예배와 하관식이 진행됐다. 성기는 목사(서기)의 사회로 열린 천국환송예배는 윤갑식 장로(부총회장)가 기도하고 김숙영 사모



고 정연성 목사 천국환송예배 및 하관식이 거행됐다

가 조가를 부르고 정요한 목사가 (증경 총회장)가 설교했다. 정목사는 계시록 21장 1절-4절을 본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고 정연성 목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기에 이 다음에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란다”며 “평소 복음의 연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고 정 목사가 다루지 못한 사역들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마스 김 목사가 조사를 하고 전모세 목사가 광고를 하고 장광춘 목사 축도로 순서를 모두 마쳤다.

고 정연성 목사는 생전에 부인 조이 정 사모가 내조하면서 사역을 함께 해왔다. (정리: 박준호 기자)

캘리포니아 주 실내예배 허용

7일주일에배 드려...찬송과 구호하러 추가소송 준비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대법원이 지난 2월 5일 팬데믹 상황을 지닌 실내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고 내린 판결에 따라 실내예배를 허용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지역에서는 정원의 25%, 보통 이하 수준의 감염지역에서는 정원의 50%까지 실내예배가 가능하다.

개별 뉴섬 주지사 사무실의 대니얼 로페스 공보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판결을 검토한 뒤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내예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7일 패서디나에 위치한 하비스트 락처치와 샌디에고에 위치한 사우스베이유나이티드교회 등은 주일예배를 실내에서 진행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비스트락처치의 제안 담임목사(한국명 안재호)는 “예배의 50%는 찬송가 부르기”라며 “실내 예배를 하는 동안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헌법을 고수했고 대법원이 이를 동의했다”며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비스트락처치는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민족 대형교회로 어버인, 코로나 지역에 캠퍼스 교회를 두고 있다. 이 같은 대면예배 부분개방 판결에 대해 상당수의 한인교회들은 반기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대면예배 재개를 시행에 옮기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캐틀리, 유대교 측이 코비드19로 인해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교계 이들과 교류 재고해야

(9면에서 계속)

또 “침례교 총회 모든 교회와 산하 기관, 지방회, 연합회는 인터콧교회의 모든 활동에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교단은 이번 인터콧 사태에 앞서 인터콧에 대해 ‘참여금지’, 예장 통합교단은 ‘예외주시, 참여 자제’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은 ‘참여금지’를 결의한 바 있다.

또 예장 합신교단은 인터콧을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 결정을 내리고 교인들의 인터콧 접촉을 금지해왔다. 예장고신은 지난 2016년 총회에서 인터콧 참여 및 교류금지가 결의된 바 있다.

미주지역에서는 미주남침례(CKSBCA) 한인교회총회가 2015년 산호세총회에서 선교단체인 인터콧과의 교류를 금지키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미주교계에서는 인터콧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다. 인터콧은 해마다 미

주지역에서 선교캠프를 열었으며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 우호관계를 맺은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비전캠프를 열었다.

또한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는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뉴욕헬럴루아대회 주강사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화장소를 제공했던 프라미스교회 담임 허연행 목사는 1월 31일 주일예배 설교에 앞서 IM선교회와 프라미스교회는 무관하며 연결돼 있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박준호 기자)

선교의 창 (163)



송종록 목사
(크로수선교전략 연구소)

매스 미디어(Mass Media)를 통한 선교

세상은 갈수록 선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 사람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을 만난 적이 없다. 그들은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들 지역은 문맹률이 높아 성경을 읽지 못한다. 인터넷 검색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성 방송을 통한 선교가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맞는 말이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은 지상군만으로 할 수 없다. 함포 사격이나 폭격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야말로 입체작전이 되어야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매스미디어 분야는 그 어느 미전도 종족 이상의 중요한 선교영역이다. 이제 한인교회도 감성적인 선교시각에서 벗어나 이 분야에 소매를 걷어 붙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1. 미디어의 정의와 종류

현대의 인간은 기술의 발달로 대중화된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와 오락을 경험하고 지식과 사상에 영향을 받는다. 위키백과사전에 의하면 매스 미디어(mass media)란 대중 전달매체(大衆傳達媒體)로서 약자로 대중매체라고도 부른

다. 이는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대량의 정보 및 시사내용, 당대의 이슈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매스미디어 종류로는 활자 매체로서 신문, 잡지, 서적, 포스터, 전단 등이 있으며 영상 매체로는 TV, 영화, 컴퓨터,

(Facebook)이라는 “TGIF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2. 미디어 선교의 일반적 실태

한국 교회는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는 컴퓨터선교·사이버선교·디지털선교를 통칭하는 의미로서 미디어 선교라는 말

핸드폰 등이 있고 음성매체로는 라디오, 음반 등이 있다.

중세는 인쇄술 발달로 대량 제작되던 책이 그 당시의 뉴미디어였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부터는 신문이라는 활자매체의 역할과 더불어 라디오가 음성매체로서 대중적인 미디어 역할을 담당했다. 20세기 세계 제1, 2차 대전 이후에는 TV와 영화가 대표되는 미디어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21세기 오늘날은 위성 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전달매체다.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e), 페이스북

을 매우 폭 넓게 사용하고 있다. 개교회주의가 극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미디어 분야는 교회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자본이 넉넉한 교회는 실시간 생중계와 동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기에 그만큼 더 인기를 끌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의 미디어 선교 영역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홈페이지가 거의 전부다. 몇 개의 사진과 글 영상을 제외하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잡다한 교회 문화의 부스러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전방

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며 자체 교회나 선교부의 홍보차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어둠의 세력은 이 공간을 자기 목적을 위한 전투장으로 인식하고 상당한 물량을 투입해 활개치고 있다. 특히 Anti 기독교 세력들은 검증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엮어 믿음의 대상이 된 사역자나 교회를 표적 살상을 하기도 한다. 정체도 밝힐 필요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악담을 퍼뜨림으로서 사람을 실족케 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것이다. 물을 엮지르면 주어 담을 수 없듯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내용은 아무리 정정보도를 한들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다.

3. 미디어사역에 대한 로잔(The Lausanne) 3차 대회의 시각

우리는 미디어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둘, 미디어의 실재에서는 일 반적인 정보미디어와 연예미디어 분야에서 확실하고도 신뢰할 만한 기독교적 역할 모델들과 커뮤니케이터들을 발굴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수단들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자들을 격려한다.

셋, 미디어사역으로는 통전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통적인’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위한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용도를 개발한다.

4. 미디어 선교를 향한 교회의 대안

오늘날 인간에 의해 개발된 테크놀로지 그 중에서도 매스 미디어는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적절히 대처한다. 다섯째로 기독교를 적대시 하는 창의적 접근 지역의 얼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돕는다.

맺음 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세계 선교는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 교회는 한 시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서부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까지 세계 인구의 2/3가 몰려 있는 북위 10-40도 사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위처럼 굳어져 있는 이슬람권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공산권에 온전한 복음을 거침없이 터뜨릴 수 있을까? 매스미디어 그 중에서도 전자매체를 통한 선교가 해답이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복음전파의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 선교하겠다는 전통적인 방안만을 고집할 경우 선교완성은 요원하다. 그러면 심산유곡(深山幽谷)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치게 되며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를 결코 따라잡을 수도 없다.

애석하게도 그간 우리는 복음전파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디어의 역기능에 취하며 이 끌려왔다. 이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디어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그 곳에 파리를 틀고 앉아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단언컨대 매스 미디어 분야에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나타난다면 세계 선교는 더욱 속도감이 붙게 될 것이다.

jrson007@hanmail.net

**현대인은 대중전달매체의 절대적 영향 속에 있다.
사탄의 세력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인간을 포획하고 있다.
교회는 미디어 영역에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힘써 지원해야 한다.**

자들로서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분야에 비판적이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수용하는 메시지와 세계관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다. 미디어는 중립적이며 때로는 복음에 우호적이지만 때로는 폭력, 탐욕에 악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이슈들에 몇 개의 사진과 글 영상을 제외하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잡다한 교회 문화의 부스러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전방

가?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과학, 테크놀로지, 미디어 분야가 너무나 중요한 선교 영역임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로 이 분야에 참여할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전문인 선교사로 인준하고 파송한다.

셋째로 신학교의 커리큘럼에 매스 미디어 과목을 넣어 미래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이해도를 높이고 기초 기술을 습득하며 순기능을 이용하게 한다. 넷째로 각 교회의 개별적 홍보 수준에서 벗어나 동방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세상을 선도하며 Anti 기독교 세력들이

특/별/기/고

“군중속의 예배가 아닌 신앙고백으로 드러지는 예배”



여승훈 목사
(남가주 보배로운교회)

프랑스의 사회 심리학자로 “군중심리학”의 저자인 귀스타브 르몽은 군중속의 개인은 집단정신을 갖게 되면서 각자가 개인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든다고 말하였습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의 중심으로부터 흐트러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군중속의 예배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군중속의 예배자는 개인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군중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이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훈련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랜 세월동안 교회에 다녔던 여러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제한되는 가운데 예배자들의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져가고 있다는 안타

까운 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예배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환경 속에서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인 흥분된 분위기나 고급스러운 시설이나 강한 훈련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가슴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세워 주시는 것...

도께 대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의 가치는 결코 군중이 가져다주는 분위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 인도자와 예배 참석자들은 더욱더 긴장되고 경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고백을 점검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중의 분위기가 곧 개인의 신앙고백인 것처럼 간주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예배가 제한이 되는

시 약 1,500여명이 모이던 뉴저지의 어느 교회 집회에서 13번의 예배 가운데 13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매우 흥분된 감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에는 미네소타 지역의 한인교회 연합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 지역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격려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번의 흥분된 감정을 경험하였

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100여명이 모이는 교회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깨가 늘어뜨려지고 마음이 축 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집회를 마치고 제 사역하는 교회로 돌아와서 새벽 강단에 앞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웠고 송구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서 있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가?” 등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씨름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주신 장소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배웠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신앙고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저의 신앙고백을 재확인하는 순간 성령께서 부어주셨던 감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감격은 군중의 분위기나 시설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추구하십시오. 최고로 멋진 예배를 추구하십시오. 그 교회 집회를 마치고 제 사역하는 교회로 돌아와서 새벽 강단에 앞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웠고 송구스러웠습니다.

제한된 예배당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드리는 예배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최고의 예배를 추구하십니까? 최고로 멋진 예배를 추구하십니까? 예배의 최고는 결코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최고는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앙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의 예배이며 최고로 멋진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멋진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고백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막연하게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씨름을 모질게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서 예배당 예배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될 때에 모두가 예배당에서 나가서 이전에 군중 속에서 예배를 휩쓸려서 드리던 예배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과 함께 가슴 벅찬 감격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다(시11:7)

시편 11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쫓겨 박을 받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위험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항상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한 후 감사해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7절).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여호와여 도우소서(시12:1-2)

시편 12편은 경건한 성도가 부패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쓴 시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짧지만 하나님 보좌에 직접 상담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시편기자가 긴급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끊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위태롭게 되고 소망이 없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경

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끊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란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 "충실한 자"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자"란 뜻인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수 경건하고 충실한 자의 모습(1)(시12:1-4)

우리가 경건하고 충실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더욱더 신뢰할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1)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 아첨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경건한 성도는 늘 남을

배려하고 말 한마디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알랑거리고 아첨하지 않습니다. 3) 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는 늘 믿음의 말을 합니다. 4) 내 자랑하는 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 경건하고 충실한 자의 모습(2)(시12:5-8)

우리가 경건하고 충성된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건하고 충성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부패와 타락을 이기고 경건하게 사는 길은 오직 기도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길 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귀하

게 보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십니다. 오류가 없으시고 정확무오하십니다. "흠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다"고 하셨는데 일곱은 거룩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영영토록 보존하십니다(7절).

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시13:1-3)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뢰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 시련가운데에서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시입니다. 오늘날 신실한 성도들도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이까?"라는 질문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

님이 멀리하시는 것 같은 때 이 감정을 막기 힘들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주님이 깊이 만난 성도만이 외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성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 한분만을 의뢰해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응답 받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후대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토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시13:1-6)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경건한 성도는 심한 영적 탄식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역설적 진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고

통을 통해서 장래에 더욱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최고의 설교가 요 목회자인 스펜전 목사는 그의 사역후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역에 전보다 큰 축복을 예비하실 때마다 나에게서 먼저 우물이 온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알기쉬운 IT칼럼

구글문서의 다양한 기능 배우기(1)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Early Adop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기가 처음 나오면 나오기가 무섭게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건 처음 나올 때는 가격이 비싸고 또 품질도 개선할 점이 많지만 남들보다 앞서서 그걸 사용한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그런 핸디캡을 상쇄하고도 남기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유행이 지나간 후 뒤늦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내가 그것 없이도 살아왔는데 굳이 돈을 들여가며 꼭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조금은 귀차니즘에 빠진 분들입니다.

물론 만족이야 자기 기준이니 누가 옳고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현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적어도 상위 30%에 속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남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찬스도 있고 또 뒤쳐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Cloud 사용

iT에 관해 어느 정도 아는가 여부는 Cloud를 잘 사용하는가를 판단하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클라우드라는 어느새 깊숙하게 침투해 와 알게 모르게 이미 사용하

주소를 입력한 후 우측에 편집자라는 것을 누르면 현재는 편집자에 체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뷰어 혹은 댓글 작성자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공동 작업을 하는데 매우 요긴한 기능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으로 자기가 맡은 부분의 글을 써서 하나로 완성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읽고 멘트만 달수 있어 권한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Google 문서는 아주 재미있는데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간다면 그 글은 늘 최신 버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 최종적으로 수정된 날짜는 기록됩니다.

구글 문서에는 물론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구글 문서 자체를 팩스로 보낼 수 있다는 것



클라우드의 대명사인 Google Drive 위력 엄청난 구글문서로 글쓰기... 수정, 타인과 공유, 팩스 가능

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클라우드의 대명사인 Google Drive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여 내 모든 자료를 저장하는 물론 구글 드라이브만의 특징인 Google 문서와 같은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범위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Cloud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한다면 이젠 큰 일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모든 글을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쓰고 있는데 글을 쓰는 방법도 말로 글을 쓰는 방법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문서에서 글을 쓰면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컴퓨터에서 그 파일을 불러와 수정하고 보완하여 완전한 문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문서는 글을 쓰는 것 이외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보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권한으로 글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글에 멘트만 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우측 상단의 공유를 누르고 공유를 원하는 사람의 이메일

입니다. 이 기능은 위에 메뉴에 부가기능이 있습니다.

부가 기능을 누르면 헬로우팩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가기능은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Hello 팩스를 누르면 팩스를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만일 표지를 넣어 보내려면 표지를 삽입하여 보내면 됩니다. 이때 Hello Fax를 처음 사용하면 허용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을 팩스로 보내는 것은 알겠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PDF 문서나 그림 파일 혹은 사진으로 찍은 것은 팩스로 보낼 수 없나구요? 물론 가능합니다. 팩스로 보낼 것을 빈 문서에 사진으로 삽입하여 보내면 됩니다.

근래 들어 팩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꼭 팩스를 써야 할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팩스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물론 팩스 전용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 되지만 이 구글 문서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비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릭사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니카라과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산 소망을 안고 넉넉히 이겨 내시는 선교의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암담했던 2020년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매일 1,000불 이상 점점 더 줄어드는 선교비를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손길들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니카라과 장로교회 신년예배

Hemos reunido por culto especial accion de gracia por año nuevo con los pastores y misioneros coreanos.

매년 1월 첫 주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장로교회 목회자 부부들과 선교사 내외가 함께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교단 본부 건물 2층 채플실에서 선교사부부, 현지인 목회자 부부 총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Jose Kim 선교사의 사회로 Jorge Castillo 목회자의 기도, Eliseo Seo 선교사의 성찬식 집례, Pablo Kim 선교사가 마25:1-13절 슬기로운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Juan Kim 선교사의 축도로 1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2부 순서로는 오영관 선교사가 6년째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기 위해 펴낸 2021년 목회자 핸드북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목회자들에게는 2021년 다이어리, 사모들에게는 큰 타월을

선물하였습니다. 김연희 선교사가 인도하는 사모기도회도 그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중단되었었지만 1월부터 다시 모여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리를 옮겨 맛있는 점심식사로 교제하고 올 한해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목회자로 사역하기를 다짐하고 목양지로 향하였습니다.



새해 첫 우물사역

Equipo de la mision salió hoy por la mañana hacia al Costa Atlantico norte por la perforacion de 4 pozos

지난 11월 태풍 에타, 요타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어 손으로 뚫던 우물들이 오염되어 시급히 식수가 갈급한 카리브해 지역에서 올해 첫 우물 사역을 하게 됩니다. 뉴욕교회, 뉴욕살버미션 장로님 가정, 토론토 Stretched Arm Society, 토론토 Stretched Arm Society, 토론토 Stretched Arm Society, 토론토 Stretched Arm Society의 섬김으로 Rosita, Empalme de alamikamba에 각 한 곳씩 그리고 Alamikamba 지역에 두 곳 등 모두 4곳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1월 5일 오전에 우물 장비가 보관된 소망장로교회에서 함께 기도드린 후 약 10시간

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사역을 연결한 이체선 선교사와 김도균 선교사, 박태진 선교사가 Enrique Zamora 목사를 비롯한 우물사역팀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역에는 우물 사역뿐만 아니라 지난 해 11월 보름 간격으로 니카라과 동북부 해안으로 상륙했던 태풍

에타와 요타의 영향으로 지붕을 잃은 교회들의 지붕을 덮어주는 지원 사역도 함께 펼쳐게 됩니다.

지난 달 Puerto Cabeza 지역에서 3곳에 우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렌트한 트럭이 Wawa 가게로 건너 오자마자 헤드라이트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급하게 운전중 2개를 구입해서 칠룩 같은 밤길을 비춰가며 돌아왔다는 마음 졸이게 하였던 간증이 아직도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4곳에 우물을 얻었습니다.

Por la gracias de Dios ya perforaron 4 pozos exitosamente. 하나님의 은혜로 Rosita에 1곳/Alamikamba에 2곳/

Empalme de Alamikamba에 1곳의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물사역팀원 가운데 1명이 급성 맹장염으로 열악한 현지 의원에서 수술을 하였지만 감사하게도 경과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물사역팀 1월 12일 새벽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7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제3산성교회)

Séptima instalación de Juego de niños en la Iglesia Presbiteriana la Fortaleza en Masaya

오영관 선교사께서 7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디자인 하여 제3산성교회에 오늘 그 설치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해 가장 성장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오늘 오전에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의 한 권사님이 헌금하신 섬김으로 이번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난 한 해 교인들 스스로 모은 헌금으로 교회장문, 강단, 담뱃까지 새로 단장하여 활발한 전도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제3산성교회에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습니다.

니카라과 영광교회 목회자 사택 건축 시작

지난해 우한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건축을 미루어왔던 니카라과 영광교회 목회자 사택

건축을 1월 11일부터 조심히 시작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세분의 선교사 가운데 영광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이재경 선교사가 직접 건축 현장을 살피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학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안정적으로 부흥하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니카라과 현 상황

니카라과는 세계적인 우한 코로나 사태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나라인 듯 합니다. 2021년 1월 6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2,114명 사망자는 2,890명입니다. 보건부 통계는 믿을 바가 못되고 그나마 작년 한 해 폐렴 환자가 30,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만 보아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방학 중인 각급 학교도 2월 1일에 개학하고 비대면 수업은 국제학교 외에는 열악한 시설로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형 행사도 아무런 방역 대책 없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11월 7일(주일) 거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4연임을 노리는 76세의 다니엘 오르테가는 외국 항공사에 승무원 포함 모든 승객의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36시간 이내에 미리 제출하여 보건부 승인을 받으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미국 항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항공사의 운항 재개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출국 시에도 한국을 비롯한

여 외국으로부터 무상 원조 받은 코로나 진단키트를 150불을 받고 보건부에서 검사해주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정부 인사들 100여명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난 12월부터 가택 연금 상태로 발을 묶어놓고 저들의 출입을 경찰들이 봉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법인들과 개인의 재정, 사역이 정부의 뜻에 반할 시 체포 구금할 수 있는 일명 푸틴법을 발효하여 밀착 통제하고 있기에 서방국가들의 비영리 법인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과 선교 사무실에도 지난 2020년 한 해 모두 6차례 경찰을 대항한 이민청 직원들의 방문 실사를 받았고 내무부에 직접 범인 전방에 관한 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했습니다. 인터내셔널 체크는 입금이 중단되었고 송금 규모도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그 사용 목적을 영수증 첨부하여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시요

- 이동홍, 김연희 선교사 내외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하여
- 니카라과 장로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 니카라과 연합 장로교단을 위하여
-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지도록
-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김연희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파라과이

벌써 12월입니다. 주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뜨거운 사랑과 정성어린 선교헌금으로 파라과이 사역이 왕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우들 기도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추수감사주일 성찬예식 세례를 베풀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수 감사에 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된 떡을 떼며 피를 나누는 좋은 성찬식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교제도 가지며 파라과이에 와서 할렐

루야 교회 62번 63번째 여섯 개 교회 137, 138번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해마다 야사도를 맛있게 먹는 좋은 날인데 올해는 맛있게 굽은 통닭을 한 리씩 나누어 드리고 집에 가서 오손도손 가족과 지내도록 했습니다.



2. 2020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대학 졸업식 졸업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시사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졸업식

선교 펴기

선교는 학부형들과 졸업생들에게 좋은 전도의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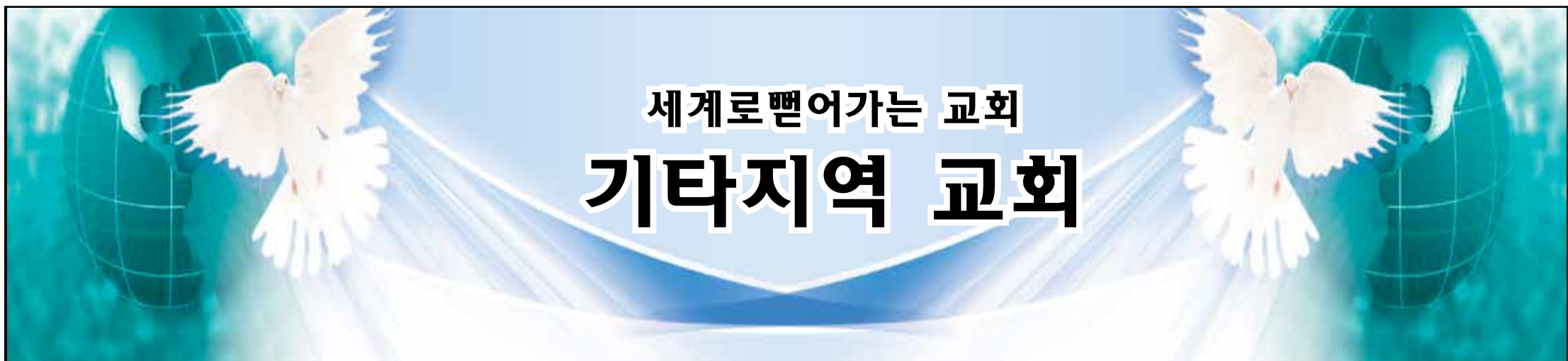
3. 신년도 교사 계약도 지혜롭게 하도록, 신입생 모집이 주께서 물고기 모으듯이 모아

주시도록. 이곳은 학군제가 아니고 모집제라서 학생모집 경쟁이 심한데 학생 모집이 잘 되도록 연구합니다. 경제가 어려워 고등학생은 모집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교사 월급과 보너스 문제로 자동차 봉고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4.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 받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 가족이 주께로 나아가 구원의 가족들이 되어 이웃을 전도하게 하소서.

5. 2021년 새학기에 IT 비대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컴퓨터가 각 교사들에게 공급되도록 기도합니다), 문교부서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을 하라는 데 선생님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원활하게 되도록.

6. 2020년 크리스마스를 더욱 심도 깊게 복음 전파의 전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16면으로 계속)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V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아 배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1부예배(화): 오전 7:00 주일2부예배(화): 오전 8:15 주일3부예배(화):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전일):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전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전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전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전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전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전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전일예배: 오후 8:00 Tel. (254)527-0981, (254)501-4833(C) 1000 E. Veletr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함향후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전일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5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kr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

[필자주] 지난 1994년부터 뉴저지밀알 선교단은 세계 22개국 70개 지역에서 장애인 복음화를 힘쓰는 세계밀알과 함께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전도),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우며(봉사), 그들을 교회와 사회에 바로 알리자(계몽)는 세 가지 목표를

가끔 장애인선교가 선교로 시작해서 복지단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본래의 선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다. 또 다른 하나는 선교의 정신은 유지하는데 단순히 기독교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고 사회와 세상에는 영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또는 장애인 선교 단체 중에 선교인가? 복지인가? 방향 때문에 분열하는 단체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장애인 선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학교도 처음에는 선교의 정신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일반 학교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선교단체로 시작해서 선교사까지 파송했던 YMCA를 선교단체로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로만 대부분 생각한다.

그 모든 원인의 하나는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단순히 장애인 선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학교, 병원, 기업, 심지어 교회에까지 폭 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에 갇혀 살아야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단체나 반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예수가 없는 단체나, 이 글은 유

용하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삶에도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전 15:3-4).

여기에서 두 가지 선포가 나온다. 첫째 예수님은 죄를 용서

갖고 시역해오고 있다. 단장 강원호 목사는 1980년 한국 총신대학 신학과에 입학해 지금까지 밀알장애인선교에서 40년을 일하고 있는데 장애인선교와 복음의 관계를 고민한 적이 많았다. 이 글은 그 고민의 정리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진리에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종교 개혁적 진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종교 개혁적 믿음에는 사랑의 실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은 주님이시기를 선포해야 한다. 이 진리에는 우리의 순종, 사랑의 실천이 빠질 수 없다 이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



강원호 목사

한다. 설교학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그 복음도 법적 범위의 청의론적인 복음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설교가 무미건조하며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필자가 복음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신학교 시절, 설교학 시간에 교수가 설교 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해서 속으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 “설교마다 주제가 다른데 주제에 관계 없이 기계적으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한다면 설교자가 앵무새 처럼 되고 똑같은 말을 설교 때마다 들어야 하는 교인들은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실제로 서울의 모 교회에서는 부목사들의 설교를 담임목사가 검토하는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구절이 없으면 복음적 설교가

때문이다. 만약 법적인 청의론만으로 복음이 선포된다면 기독교가 죄를 더 짓게 한다는 오해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청의론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깊어지고, 기독교 문화가 교회 내에서만 통하고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구령 사업에만 치중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헤르만 리더보스의 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리더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칭의의 위대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울 설교의 종말론적이고 기독교론적인 기본 구조와 이 교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배경을 무시한 채 칭의의 교리를 생각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칭의의 교리가 마치 바울의 구원 교리의 전체인양 착각하여 다른 주제들을 모두 이 교리에 부속시키는 오류를 범하여 왔으며 그 후에는 반대로 이 칭의의 교리를 전적으로 뒷전으로 미루고 신비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헤르만 리더보스, 박영희 역, “바울신학”, p.206).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라는 칭의의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나라(미래적이면서도 현재 시작된) 주님이 되신다 라는 진리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인가 복지인가... 선교로 시작 복지단체로 끝나는 경우 많아 복음을 청의론적으로만 이해하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 깊어져

해주시는 구원자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러나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즉 구원과정처럼 사랑과 선행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진리를 선포해서 순종과 선행을 해야 한다.

신을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사랑과 선행에 힘쓸 수 있다. 또한 사랑과 선행에 힘쓰면서도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불안이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미래적이면서도 이미 현재 시작된)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 칭의, 화해, 성화, 구원, 온전케 하심 등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한다. 그런데 단지 청의론적인 복음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복음의 포괄성과 풍성함을 놓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단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청의론적인 복음만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우 윤리에 대하여 말을 하면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라고 판단을

아니라고 해서 설교를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청의론적 복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죄 용서함을 받는 칭의론적 복음만이 복음이라면 굳이 일찍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왕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세례를 일찍 받으면 세례 후 왕으로서 지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구글문서의 다양한 기능 배우기(1)

(14면에서 계속)

Give & take라는 말이 근래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주려하지 않습니다. 받으려만 하고 그걸 점점 지나쳐 주는 이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느새 권리로 여겨 받으면서도 짜증을 내기까지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주는 이가 그 행위를 그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을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자주] iT에 관한 무료 전자잡지를 스마트폰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카톡에서 슬야생한국이라고 검색하시고 눌러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일주일내 두 번 전자잡지와 무료 교육에 대한 안내가 뜹니다. 그 방에는 아무

글도 올리지 마십시오. sjyoon7231@gmail.com

선교편지

(14면에서 계속)

5. 성탄축하예배 및 선물 나누기(12월 20일 대잔치 전도의 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전교인들에게 이 나라 떡(Pan Dulce)을 큰 것 한 덩어리씩과 어린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케익을 하나씩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어느 나라 할 것없이 크리스마스는 대 명절이므로 선물을 나누어드려 구원자 주님의 탄생과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헤드리는 전도의 날도 되었습니다.

6. 코로나19로 인한 온 가족이 슬픔에 싸였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훈련 중인 사위(이경승전도사)가 갑자기 브라질 마나우스에 계시는 아버지(이성전)와 어머니(이신숙)가 아프셔서 약을 구입하여 브라질 마나우스로 달려갔는데 아버님을 간호하고 1주일정도 잠을 못자고 뜬눈으로 간호했는데 아버님이 겨우 퇴원하여 집에서 응급병원을 차려놓고 진료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와 사위

가 열이 오르고 아파서 병원으로 갔는데 엄마는 바로 응급실로 가고 사위는 병실이 없어 2-3일 기다리고 고생하다가 겨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 어머니(사돈)가 천국의 부름을 받았고 사위는 병원에서 슬픔의 고통을 겪으며 아무도 간호할 분이 없이 홀로 지내다가 이제 퇴원하여 집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7. 앞으로의 기도 제목들

- 1)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공부를 잘 인내하여 아름답게 2021년 새해를 맞도록
- 2) 전도와 심방으로 교회가 더

욱 신앙성숙이 이루어지도록

3)어려운 중에서도 새로운 일곱 번째 개척지가 씨를 심고 움이 돋고 꽃이 피도록

4)막내딸과 사위가 목사 안수와 선교사 파송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5)전도하는데 필요한 좋은 전도지와 전도용품들을 만들어 더욱 전도하도록

6)사도신경 심계명 강해 공부에 잘 참석하여 신앙이 성숙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amorr1004@hanmail.net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기간 : November 20, 2020
• 제출처 : jp@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